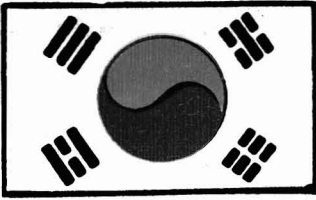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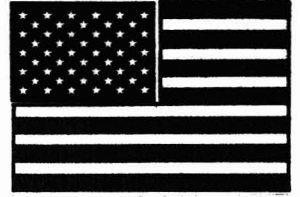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206) 362-4500
JOO CHAN CHAI, Publisher
JAE HONG KIM,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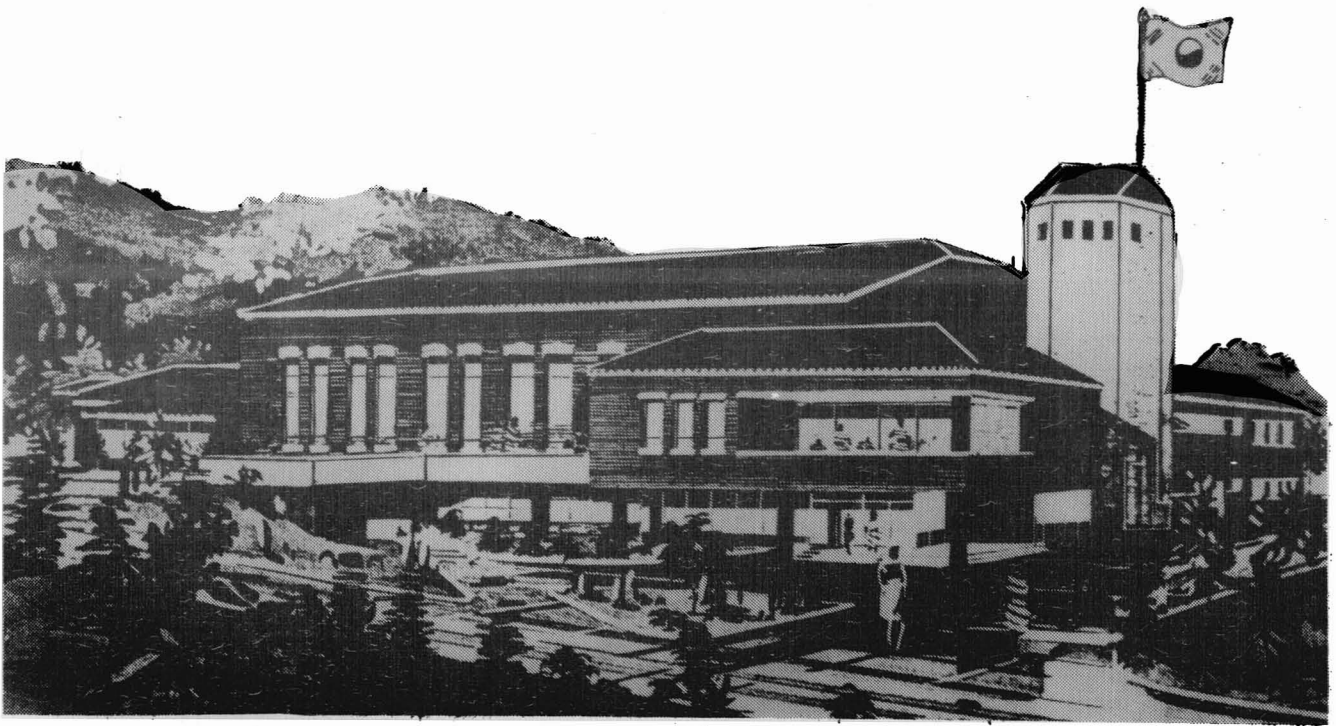


한인회보

1988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1-3



88 한인회관상상조감도

January 8, 1988 (Volume 2, No. 1)

무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사업과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87년도 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소득자료와 공제가능한 비용의 영수증 및 계본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세 이상 자녀의 Social Security 번호를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속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Newsletter에서는 연방 소득세보고 기간을 맞아 흔히 질문을 받는 사항들을 짚어 주었습니다. 소득세 보고가 끝나는 4월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들을 함께 논의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Q1: 기존 납세자도 87년도 과세소득이 \$59,367 이고 부부합동보고를 하려합니다. 저의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요.

87년도에도 미국세법의 기본인 누진세 제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86년도의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이 간소화되어 87년도에는 소득에 따라 11%에서 38.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납세자의 경우 87년도 소득세는 아래에서 보드시피 \$13,868.45가 됩니다.

11%	세율소득 = \$3,000 x 11%	=	330.00
15%	= 25,000 x 15%	=	3,750.00
28%	= 17,000 x 28%	=	4,760.00
35%	= 14,367 x 35%	=	5,028.45
	59,367		13,868.45

Q2: 87년도 과세소득이 \$59,367 인 미혼 납세자입니다.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요.

금년에 내셔야 할 소득세는 \$16,724.05 이 됩니다 (아래 계산 참조).

11%	세율소득 = \$1,800 x 11%	=	198.00
15%	= 15,000 x 15%	=	2,250.00
28%	= 10,200 x 28%	=	2,856.00
35%	= 27,000 x 35%	=	9,450.00
38.5%	= 5,117 x 38.5%	=	1,970.05
	59,367		16,724.05

Q3: 45세의 남자도 처가 42세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소득세 보고는 부부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분의 공제총액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7,560.00 입니다. 따라서 두분의 총소득 (Gross Income)이 \$7,560.00 이라면 두분의 과세소득은 \$0 이 되는 셈입니다.

총소득		\$7,560.00
기초공제	(부부합동)	\$3,760.00
인적공제	(2인)	3,800.00
과세소득		\$ 0.00

87년부터는 기초공제금액은 납세자의 연령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허용) 과 시력상실 여부, 그리고 세무보고형태 (Filing Status)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납세자의 부양자 (dependent) 로 세무보고가 된 경우라면 기초공제금액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Q4: 만약 Q3의 납세자중 어느 한 분이 시력상실자라면 두 사람의 공제총액은 \$7,560 에서 \$9,400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시력상실자의 경우 기초공제액이 \$3,760에서 \$5,000로 증가하는 동시에 \$600의 추가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시력상실자 기초공제 (부부합동보고)	\$5,000
시력상실 추가공제	600
인적공제 (2인)	3,800
공제총액	\$9,400

Q5: Q4의 납세자가 부부합동보고대신 개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 를 하고 시력상실 배우자는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보고를 하는 납세자가 시력상실 배우자를 부양자로 보고) 이 경우 공제총액은 \$6,900 이 됩니다.

시력상실 기초공제 (부부개별보고)	\$2,500
시력상실 추가공제	600
인적공제 (2인)	3,800
공제총액	\$6,900

따라서 이 납세자의 경우 부부합동보고대신 개별보고를 함으로써 \$2,500의 공제총액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Q6: 05의 경우 시력상실 납세자는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득세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근로소득이 \$3,100 이상, 또는
- (2) 비근로소득 (이자 및 주식배당금 등)이 \$1,100 (시력상실자이며 동시에 65세 미만이면 \$1,700) 이상, 또는
- (3) 근로소득과 \$500 을 비교한 후 더 큰 금액에 \$600을 더한 금액보다 총소득이 많은 경우, 또는
- (4) 총소득이 \$5.00 이상되고 배우자가 항목별공제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시력상실자는 아무런 기초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Q7: 7세년 남자를 둔 부부입니다. 금년도 총소득이 \$12,500 인데 저의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7년도 두분의 소득세는 항목별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336 입니다. 두분이 받을 수 있는 공제총액이 \$9,460 이 되기 때문에 과세소득은 \$3,040 이고 이에대해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11%	소득세율 = \$3,000 x 11%	=	\$330
15%	= 40 x 15%	=	6
	\$3,040		\$336

그러나 두분의 경우 불공이나 자영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Earned Income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 (1) 근로소득이 있고
- (2) 수정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이 \$15,432 을 넘지 않으며
- (3) 6개월 이상 함께 미국내의 주거지에서 거주한 자녀가 있고
- (4) 국외 근로소득 (Foreign Earned Income)을 IRS Form 2555에 File 하지않아야 하며
- (5) 부부개별보고를 하지않고 반드시 자녀를 부양자로 보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납세자의 \$12,500 소득이 전액 근로소득이고 또한 수정 총소득 이라면 두분의 Earned Income Credit은 \$292 이 됩니다. 따라서 87년 최종세금은 \$44 (소득세 \$336 - \$292 EIC) 입니다.

Q8: 70세 남자로 66세의 처와 살고 있습니다. 87년 소득이 \$9,500 인데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두분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세법상 특별 취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공제총액보다 적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두분의 공제총액은 \$10,000 (\$5,000 고령자 기초공제 + \$3,800 2인 인적공제 + \$1,200 추가공제)로서 공제총액이 소득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인이 65세 미만이라면 두분의 소득에 대한 \$11 (11% x \$100)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9: 18세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87년 소득은 \$600의 이자수입과 여름방학때 part-time으로 일해서 번 \$150의 용금이 있습니다. 아들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 저희부부가 아들을 부양자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부모님의 경우 아드님을 부양자로 보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의 연령이 19세 미만이면 또 총소득이 \$1,900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드님이 19세 이상인 경우라면 87년에 5개월 이상 Full-time 학생이어야만 부양자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있고 총소득이 \$500을 넘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액은 \$500과 \$250의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납세자에 의해 부양자로 보고되는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기초공제액은 (1)\$500 과 (2)납세자의 근로소득 (아래 표에 따른 최대허용액 이내에서) 을 비교해서 더 많은 쪽의 금액을 따르게 됩니다. 아드님의 기초공제액은 \$500 이므로 또한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허용된 인적공제를 취하기 때문에 아드님은 인적공제를 취할 수 없습니다.

표1: 다른 납세자의 부양자로 보고되는 납세자의 최대 기초공제액

Filing Status	Max. Standard Deduction
Single	
Under 65 and not blind	\$2,540
Either 65 or older or blind	3,750
65 or older and blind	4,500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 *	
Under 65 and not blind	\$1,880
Either 65 or older or blind	3,100
65 or older and blind	3,700

* If dependent's spouse itemizes deductions on a separate return, dependent's standard deduction is zero.

Q10: 21세년 동생이 87년에 신문배달을 해서 \$2,000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87년 10월부터 학교에 재학중인데 동생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저희 부모께서 동생을 부양자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유감스럽게만 부모님들께서는 동생을 부양자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동생의 소득이 \$1,900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19세 미만이거나, 또는 (2)full-time으로 87년에 5개월 이상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생의 경우 19세 이상의 연령이며 또 학교도 3개월 밖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무보고시 부양자로 취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보고 의무는 신부배당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봉급(wage)인지 또는 자영업소득(self-employed earning)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2,000 소득이 초과된다면 미군납세자의 과세소득이 \$4,440 (\$2,540 기초공제 + \$1,900)보다 초과되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금을 찾고자 한다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2,000 이하의 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신부배당의 경우) 흔히 자영업소득에서 배당권을 얻은 간주소득으로 간주하는 신부배당 소득은 원천징수된 다음 과세소득이 \$400 이하이면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체 수입보고(Schedule C)와 자영업자 사회보장세보고(Schedule SE)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동생의 경우 제한이익이 \$2,000 이하이면

신부배당으로 인한 수익	\$2,000	
제한이익(미군납세자 보고)	(4,440)	
과세소득 *	\$ 0	
소득세	\$ 0.00	
사회보장세 \$2,000 @12.3%	246.00	
총세금	\$246.00	*****

Q11: 만일 Q10의 납세자가 21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이라면 신문사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자영업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보고의 의무가 소멸됩니다. 또한 이 납세자의 부모도 이 납세자를 부양자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Q12: 12세 미만 아들이 \$1,900의 이자 (또는 주식배당) 수입이 87년에 있고 다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아들이 해야 하는지요.

아드님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500 이 넘고 또 다른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드님이 14세 미만임으로 적용받게 되는 세율은 부모님의 한계세율과 본인의 세율 중 가리가 됩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소득세 보고를 하기 전에 부모님의 소득세 보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드님의 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될 지는 따라서 부모의 소득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부모님의 과세소득이 \$20,000 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드님의 소득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소득세 부담:	아들의 소득세:	
11% x \$3,000 = \$ 330	총 비근로소득 \$1,900	
15% x \$17,000 = 2,550	기초공제 500	
\$20,000 \$2,880	과세소득 \$1,400	*****

아드님의 과세소득 중 처음 \$500 은 아들의 세율 (11%)을 적용받고 나머지 \$900은 부모님의 한계세율인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소득세는 \$190입니다.

아들 부담의 소득세:	
11% x \$500 = \$ 55	
15% x 900 = 135	
\$1,400 \$190	*****

86년의 개정세법은 14세 미만 자녀에게도 부모소득의 일부를 이전시켜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Q12에서 본 납세자의 경우 아드님의 소득이 부모의 세율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보다 \$36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Q12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500 이하이면 그 금액을 더 내게 됩니다. Q12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500 이하이면 그 금액을 더 내게 됩니다. Q12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500 이하이면 그 금액을 더 내게 됩니다.

만약 Q12의 경우 \$1,900 소득이 전액 비근로소득이 아니고 일부가 근로소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납세자의 기초공제액은 \$500으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 \$500에서 \$2,54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기초공제액 중 처음 \$500은 비근로소득으로 적용되고 (만일 비근로소득이 \$500 미만이라면 그 금액까지) 나머지는 근로소득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500 이 안된다면 이 납세자의 기초공제액은 \$500까지이며 총 비근로소득에서 기초공제액을 제한 후 과세대상 비근로소득 (net unearned income)을 산출해야 합니다. (아래 Q13의 예 참조).

Q13: Q12의 납세자가 (1) \$300의 근로소득과 \$1,600의 비근로소득을 가진 경우 (2) \$1,500의 근로소득과 \$400 비근로소득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이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근로소득	\$300	\$1,500
비근로소득	1,600	400
총소득	\$1,900	\$1,900
기초공제 - 근로소득부분	0	1,100
비근로소득부분	500	400
총기초공제	500	1,500
과세소득	\$1,400 *	\$ 400 +
소득세:		
(1) 아들 세율 비근로소득 \$300 @11%	\$ 33	
비근로소득 500 @11%	55	
부모세율: 비근로소득 600 @15%	90	
소득세	\$ 178	*****
(2) 아들 세율 근로소득 \$400 @11%	\$ 44	
소득세	\$ 44	*****

* 과세소득 \$1,400 중 \$300 이 근로소득 그리고 \$1,100이 비근로소득임. 따라서 비근로소득 \$600 이 부모의 한계세율과 연계됨.
+ 과세소득 \$400 전액이 근로소득임. 따라서 아들의 세율만 적용됨.

*** 기타 고지사항

(1) 증업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오는 1월 31일 까지 87년도 4/4 분기 Payroll Return을 해야하고 아울러 W-2 Form 을 증업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의 실업보험 (WSUI) 과 산재보험 (WSDI) 보고도 이 달 31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87년의 마지막 봉급계산이 끝나는 대로 모든 payroll 자료를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2) 1월 15일은 1987년도 마지막 소득세 예납 마감일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3) 지난 호 Newsletter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업원 및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율이 87년의 7.15% 에서 금년에는 7.51%로 인상되었습니다. 증업원 봉급계산시 FICA 공제를 7.51%로 하여야 합니다.

류 종합보험



Allstate®

- 차보험
- 사업보험
- 용자알선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가옥보험
- 건강보험

언제나 신뢰하고 맡길수 있는
류생명 종합보험

362-2692 사무실
672-7884 자택
12708 Lakeway Way NE Seattle, WA 98125

泰和閣

Restaurant
MANDARINE CUISINE

- 한국식중화요리
- 수타국수

영업시간 : 11a.m.~10p.m. (일~목)
11a.m.~11p.m. (금, 토)
주소 : 6312 Bothell Way N.E.
Seattle, WA 98155
전화 : 485-4020

전기제품 일철수리

24 HOUR SERVICE
MARK W. LEE
771-5728
이응호

LEE'S SERVICE CENTER
4104-219th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PAGER: 991-6944 *** □□□-□□□□ ***

(206) 839-9211

코리아저널

1645 S. 310 th ST. #B,
FEDERAL WAY, WA 98003

봄철 Beauty Guide



유단학 타코마대리점 제공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첫째, 피부는 항상 약산성이어야 합니다. 약산성인 피부는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높습니다. 세균의 활동은 피부표면이 약산성일때 활동이 둔해지고 알칼리화되면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여름철 피부에 땀을 많이 흘리면 땀띠가 나는데 그 원인중위 하나가 피부의 알칼리화에 기인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에 약산성 산도를 유지하려면 매일하고 있는 세안시 세안료를 약산성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기초화장품역시 약산성 시리즈로 사용하여 피부에 알맞은 산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둘째, 피부표면이 촉촉하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우리피부의 표면인 각질층은 15~25%의 습윤을 항상 함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해줄때 피부는 촉촉하고 매끄럽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심한 추위로 모든 생리능이 저하되어 천연피지막 형성이 어렵고 난방시설과 건조한 외기등은 피부에 필요한 수분유지를 어렵게 합니다. 로손과 영양크림에 역점을 두면서 기초화장을 꾸준히 하되 피부상태에 따라서 로손을 이용한 맛사지와 영양크림을 이용한 팩을 실시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수면은 피부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어 신진대사를 가장 활발하게 해주고 피부조직의 피로를 풀어주므로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세포분열이 활발해지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모세혈관의 확장으로 혈액과 영양이 공급되는 밤 10시~새벽 2시 사이에는 깊은 수면을 취하는것 바람직하며 규칙적인 7~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넷째,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이 피부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고 균형있

는 영양섭취를 하여야 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등을 골고루 섭취하며 특히 비타민은 피부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피부유지를 위해 필요량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현대사회는 여러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여드름, 거친피부, 주름등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많이 기인합니다. 피부는 항상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과 호르몬계통에 크게 작용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대기오염, 공해, 외부의 자극등의 외적요인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등의 내적요인에 의해 피부기능이 깨어지게 되면 피부자체의 보호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게되고 따라서 피부가 손상되어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운동을 매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갖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주도록 합니다.

여섯째,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를 삼가합니다. 담배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부노화와 관계가 있으며 주름살을 더 일찍 생기게 합니다. 또한, 약간의 술은 혈관을 팽창시켜 피부에 건강한 혈색을 띠게합니다. 그러나 과음은 혈관파열의 원인이 되어 얼굴과 몸에 가는 실핏줄이 나타나게 되고 체내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음주후에는 갈증을 느끼게되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진성화되어 거칠고 부서해집니다. 과음후에는 뜨거운 입욕과 맛사지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쉬게 해주므로써 탄력있는 피부의 빠른회복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변비를 예방합니다. 자율신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비는 신경이 예민한 여성에게 특히 많습니다. 변비로 인해 체내에 풀게되는 독소는 피지선을 자극

하여 피지의 분비를 촉진시켜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또한 변비는 피부를 매우 민감하게 변화시켜 생기와 윤기를 잃게하며 뾰루지등 피부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습관과 배변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배설이 안되더라도 매일아침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고 아침일찍 일어나서 한컵저도의 냉수나 우유를 마시면 변비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여덟째, 꾸준히 세심하게 피부손질을 해줍니다. 우리 피부는 항상 호흡, 분비작용을 하여 체내의 노폐물, 탄산가스, 유분 땀등을 몸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내적, 외적요인으로 피부표면은 항상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부를 깨끗이 하지 않을경우 기름샘과 땀샘이 막힘으로써 피부의 호흡, 분비기능을 저해하며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됩니다. 모든 피부손질의 기본은 청결이지만 피부를 청결히 한다고 비

누세안을 하는것은 우리 피부표면의 천연피지막을 파괴할뿐 아니라 피부의 영양과 유분을 과다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세안방법은 우리 피지막 상태와 똑같은 약산성 제품을 이용하여 더블 크린싱해주는 방법입니다. 더블 크린싱이란 먼저 크림이나 로손 타입의 세안제를 이용하여 피부의 노폐물이나 메이크업의 여분을 닦아낸후 거품타입의 폼 크린싱제품을 이용하여 물세안하는 세안으로 가장 완벽한 세안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안시 뜨거운 물세안은 모공을 지나치게 이완시키므로 미온수로 세안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며 더블 크린싱 세안후 완충 화장수를 이용하여 다시한번 피부를 정리정돈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맛사지크림, 수렴화장수, 로션, 영양크림등을 약산성으로 선택하여 피부손질을 꾸준히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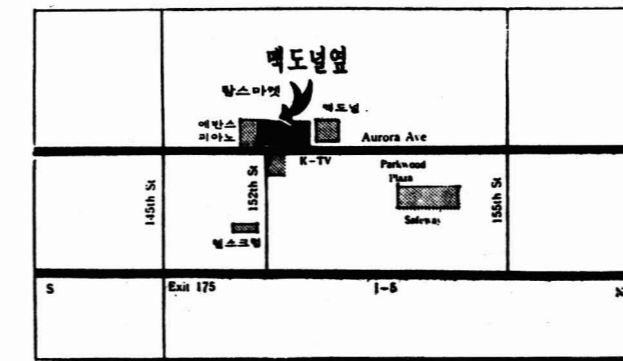
공실떡
결혼, 생일, 회갑,
각종연회용
주문배수

탐스마켓

(공실떡공장 직매점)

시애틀 지점 **361-7094**
15033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타코마 본점 **582-1158**
11717 SW BRIDGEPORT WAY
TACOMA, WA 98499



—영업시간—
7DAYS OPEN
아침 9시~저녁 9시

한인회 동정 및 공지사항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의 출범을 알리는 시무식 및 임원이사 상견례가 지난 1월8일 오후 7시부터 씨애틀 신라식당에서 임원이사부부 및 언론계 인사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병국 사무총장의 사회로 막이오른 이날 시무식에서 최주찬 회장은 "금년에는 기필코 회관을 마련하는해"로 삼고 이일을 위하여 밀고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이날 전 임원에게는 기안지, 불펜, 일기장, 인쇄한 명함등이 배부되었으며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일할것을 다짐했다.



2. 시애틀 한인회는 지난 1월9일 시내 영미정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100여명의 교민 및 유지가 참석한 가운데서 신임 최주찬회장은 "배달민족의 긍지와 얼을 이곳 미국땅 워싱턴주에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이자리엔 김총영사, 기독교연합회장, 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 한인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회관건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다.



3. 한인회관 모금운동이 지난 1월21일 밤 「Lynnwood Int'l Inn」에서 「역대이사임원 간담회」를 통해 성화되기 시작했다. 60여명이 모인 이자리에는 전임회장·임원들이 참석, 지난 20년을 회고하였다. 특히 초대회장이었던 이창희(작고)씨의 부인 김간난여사의 회고 및 회관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한원섭 부회장이 선두로 도네이션을 시작, 약 1시간에 걸쳐 10만불이 넘는 거금이 모아지는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자리에서 신임 최주찬회장은 모범을 보인다면 3만불(캐쉬어 체크)를 즉석에서 내놓기도 해 회관건립이 빈 공약이 아님을 증명하기도 했다.



4. 연례행사의 일환으로 한인회장단이 올림픽아 주지사를 예방했다. 이자리에는 심영식, 박태호, 김인국, 로젠홀츠여사 등 한인회 임원들도 같이했으며 이자리에서 워싱턴주 행정 입법 당국자들은 상원·본회의 도중 최주찬 회장을 귀빈석에 앉히는등 한인사회에 대한 예우를 했다. 주지사 가드너는 오는 6월25일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하며 본인이 이끄는 미여성축구팀도 출전시키겠다고 하기도 했으며 또 최주찬 회장은 올림픽 홍보에 직접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또한 준비된 올림픽 경기장 주형물과 배지를 주정부에 선사하기도 했다.



5. 시애틀 한인회는 88 올림픽 기념특집으로 88년도 한인록을 발간한다. 워싱턴주 전지역 교민을 대상으로 발간될 이번 한인록에는 개인업소회사 및 각 단체들의 주소 및 광고가 수록될 예정인데 주소 및 광고마감은 5월31일까지이며 발행예정은 8월말일경이 된다.

또한 개인주소록 및 업소록 기재 양식이 씨애틀 시내 전역에 있는 한국식품과 한국식당에 주소록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누구나 양식에 쉽게 기재하여 함에 넣으면 한인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한인록에 수록한다고 하며 교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6. 지난 2월6일 한인회 정기이사임원회의가 최주찬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본회의에서 88년 예산안 인준 심의 및 신규이사 영입에 관한 내용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신임이사로 이종현, 이종건, 김침작씨가 확정됐다.

7.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교포사회의 화제인물이 됐던 김침작씨 김동협목사님에 이어 어린 두소녀가 헌금을 하여 화제가 되고있다. 한인회관을 방문한 어린 두소녀(한혜린·한혜영)는 고사리손에 흰봉투를 들고 회관건립에 보태달라고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반에 있는 중국 아이들은 늘 자기네는 문화회관이 있다고 자랑하여 기가 죽었다고....

8. 한인회칙 개정위원회 발족(정관위원회)

지난 1월26일 오후6시부터 4시간동안 한인회사무실에서 제1회 정관위원회가 모였는데 이날 모임에는 정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우선 1983년 이래 전혀 손도 대보지 못한 한인회칙을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 혹은 수정 보완할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개정위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이되, 각계 단체를 대표할만한 공정한 인물들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관위원회 위원장에는 구범회 전회장이 뽑혔고 총무간사에는 정병국 한인회사무총장, 기초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황동규, 문희동, 민학수 제씨가 선출되었다. 정관위원회를 우선 회칙 개정위원회로 명칭을 고치고 기초소위원회에서 만들어오는 초안을 월 2회에 걸쳐 모임을 갖고 심의하기로 결정했는데 회칙개정 위원회위원은 다음과 같다. 구범회, 장진섭, 문희동, 박귀희, 조원일, 황동규, 민학수, 백웅기, 김정부, 심영식, 정병국(무순), 한편 회칙 개정위원회는 그간 다섯차례의 모임을 가진바 있다. 그리고 현 88년 한인회장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9. 한인회관 건립 기금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회관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주찬)에서는 태극기·성조기 페난트를 만들었는데 이페난트(사진 참조)에는 일련번호가 찍혀있고, 교민이면 누구나 하나씩 살수 있는데 값은 하나에 \$10.00이라고... 원가는 훨씬 싸지만 우리 회관을 건립하는데 기부금을 내는셈치고 하나씩 구입한다면 모두 5천개를 만들었으니 쉽게 \$50,000을 확보할수 있다고 하며, 판매개시는 4월초가 될것이며, 구입방법은 보도기관을 통하여 설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인회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응답할것이라고 한다.



10. 민족적 자주독립의 정신을 되새기는 제69회 3.1절 기념식이 지난 3월1일 오후 7시30분부터 미드·웨이 소재 한인상공회의소의회의실에서 씨애틀·타코마한인회 합동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타코마노인회 대표, 김홍수총영사, 각계단체 인사 및 교포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독립투사 배동석의사의 차남 배우위(73세)옹이 참석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심재환 사무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기배례, 김동협목사의 독립선언문 낭독, 이영부 타코마한인회장, 이석주 씨애틀 한인회 부회장의 기념사, 김홍



수 총영사의 축사, 3.1절노래에 이어 김병섭 장로의 만세삼창으로 끝났다. 또한 식이 끝난후 씨애틀 한인회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3.1민족정신을 본받아 단합하는 교민사회를 만들자는 여론을 모으기도 했다.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금년을 회관건립의해로 삼고, 연초부터 대상 건물을 물색중에 있는바,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부터는 부동산 업자를 한인회관에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자리에는 부동산업자측에서 윤상인, 이종주 양씨가 대표로 참석했고 한인회측에서는 최주찬회장, 백웅기이사장 및 정병국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는
- 1) 우선 3월31일까지 현사무실에서 나가야하므로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물색하고,
 - 2) 또한 영구 한인회관으로 사용할 빌딩을 50만불을 목표로 구입하도록 전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알린바 있다.



보람에 산다

여러차례 전화로 약속을 했으나 다른 약속때문에 만날수가 없었다가 겨우 일요일저녁 커피숍에서 만날수가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인이라는 인상보다는 건장한 중남미인이나 유럽풍의 남자같은 인상을 받았다.

웅장 Van 차에 한국간판글씨를 삽입하고 섬세한 그림까지 그려넣은 순한국식 간판이랄까? 일을 하는데 애로같은것은 없느냐 묻자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직업인데 누구에게 애로를 얘기하겠느냐고 되려 반문을 한다. 듬직한 Van 차에 몸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노라면 모든게 즐겁고 내 청춘을 팔러가는 사람같다고 하며 마냥 보람있고 자부심있는 일이라고 자랑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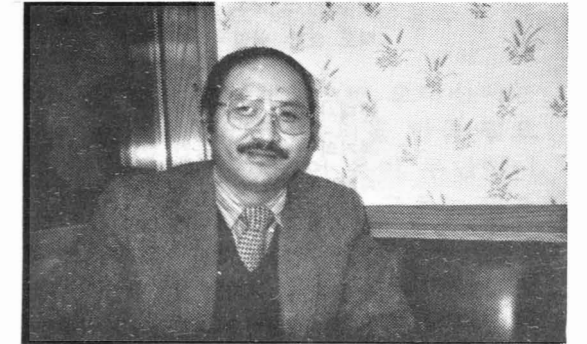
한국에서 공대 전기과를 졸업, 여러기업체에서 전기담당기사로 근무했으며 특히 냉동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장담을 해보이기도 한다. 미국에 도착한것은 지난 75년 시카고에서 잠시 전기공사회사에서 근무했지만 도대체 남미에서 일하는게 적성에 맞지않는다면 이곳 씨애틀에 오면서 소위 자영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물론 자본이라곤 전기기술에 Van 차 하나가 전부였다고 술회한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Lee's 전기서비스 하면 몰라도 콧수염 전기기사하면 모르는사람이 없다고 한다. 미국에 오자 그저 호기심으로 한번 키워본 마스타치가 이젠 제법 자리를 잡았고 개인의 대명사 트레이드 마크가 된이상 없애려도 없앨수가 없단다.

가장 보람있는 일이 무엇이었냐 묻자 남들이 고치다 못해 놔둔걸 고쳤을때 기쁨이라고 하며 그 기쁨은 결코 돈으로 살수없는 희열이라고 한다.

술하에 2녀를 두었고 아내와는 각별히

사이가 좋은편이라며 어머니도 한집에서 같이 기거하는 행복한 가정에 속한다며 아쉬운것은 24시간 서비스해야 하는 직종이라 아이들, 아내한테 항상 미안해하며 산다며 고개를 숙인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진실하게 대화를 하다보니 기술도 인정받아 제법 많은 고객을 가지고 또 처음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금년의 소원은 그저 단 2주일이라도 가족들과 멀지않은곳에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거란다. 시간이 나는 주말이면 운동(특히 한때는 북부축구팀 주전선수였기도 함)을 좋아하고 독실한 가정의 기독교 신자임을 강조한다.



겨우 얻은 인터뷰 시간 20분도 못돼 허리춤에 차고있는 비파 머신에서 「삐삐」하며 호출을 한다. 한잔의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또 탄곳으로 가 봐야한다며 자리를 뜬다. 듬직한 Van 차에 앉아 시동을 걸자 코밑에 수염이 약간 휘날리는듯 하면서 차가 멀어져 간다.

주택용자

좋은 조건으로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저에게 상의의해주세요

사무실 (206) 547-8050

자택 (206) 522-7566

JAMESON SHIELDS MORTGAGE SERVICES, INC. 936 North 34th, Suite 400 Seattle, Washington 98103

MIRA HWANG LOAN OFFICER

앞으로의 사회와 교포사회의 대처방안

김 선 태
K Systems, Inc.

미국에든지 얼마되지않아 한국일보에 나온 미국 국민의 문맹을 피센테지가 매우 높은 것을 보고 놀란적이 있다. 아무리 무어러도해도 세계최대 강국인 미국이 문맹율이 높다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에 놀란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살아보면서 나 자신도 반문맹임을 절실히 느낄때가 많이있다. 완전히 대화가 통하지 않고, 공문서가 정확히 읽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맹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교육받은 자의 특권으로 생각하다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못해 문맹자로 전락하게된 것이다.

이영여에 대한 사람들의태도 또한 각양각색이다. 아예 영어를 배우기는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고 영어만 쓰는 무조건 피하는 사람, 되든안되든 마구 떠드는 사람, 매일 학교에 나가고, 영문법을 따지며 막대한 시간을 들이는 사람, 여러가지이다. 이런사람들에 대한 나의 소견은 되든 안되든 마구 노력하고 이야기하는 타임이 미국에서 가장 적음이 빠르지않을까 생각한다. 바쁜 이민생활에 학자가 공부하듯 영어를 익히는 것도 이미 나이들어 미국에 온 세대에게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영어만 쓰면 무조건 피하는 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사회란 어떠한가?

과거의 1-2세기 동안 인간의 생산성 향상을 올리기위해 기계가 발달하고, 동력을 사용하는 "산업화 시대"에 살았었다. 그러나 요즘은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어 파는 것이 이익폭이 큰것이 아니라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하면 많이 팔수 있나를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아라든지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계층을 연구하는 산업이 이익폭이 크리라고 예상된다. 예를들면 물건의 제조업자보다 물건을 많이 팔수있는 유통채인을 가지고 있다든지, 부동산 그자체보다 지역이나 경기여건을 가미한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농업 그자체보다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종종 계량사업 등 정보를 집약적으로 다루는, 사람의 머리를 활용하는 정보서비스업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집약적산업이 발달하게 될것이다. 이는 같은일을 하더라도 정보를 다루는 능력, 다시말하면 기획포착이라든가, 정보수집능력이 따라 어떤사람은 백만장자도되고 어떤 사람은 먹고살기도 힘든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많은 경우 정보를 다루는 자기자신의 능력은 인정치않고 은어있더라든지 환경이 맞지않다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정보수집능력을 키워주는 최대의 무기는 "컴퓨터"이다. 컴퓨터라고 하는것은 머리를 사용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이다. 능부가 드태터가 있으면 생산성이 급속히 향상되고, 군인이 총이 필요하듯이 정보회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도구가 컴퓨터인 것이다. 인터넷우에서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 문맹이란 개념은 컴퓨터를 사용할수있느냐 없느냐로 정의될지 모른다.

이러한 시대가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또한 영어를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컴퓨터만 보면 무조건 겁을내는 사람, 일학년 아들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소나하는 사람, 컴퓨터가 필요하고 배워야하네 밤에느니College에 나가서 Language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를 배우야 하겠냐는 논, 각양각색이다. 인터넷도들에 대한 나의 소견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필요한것을 겁없이 쓰는 태도이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할수없을 때는 Programmer에게 부탁하든지 가계에 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컴퓨터에 넣어 쓰는 태도이다. 컴퓨터 시대이니가 컴퓨터를 배운다고 컴퓨터구조다 컴퓨터언어에 시간을 쏟는 것은 물론 알면 좋긴하지만은 바른이민생활에 남비이다. 이는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고 정비학원에 다니는 것과 매일반이다. 간단히 운전만 배워 가고싶은데 가는 것이 자동차의 목적인 것이다. 또한 컴퓨터만 보면 겁을 내는것은 앞으로의 도래할 사회에 적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진인 것이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운전이 겁이나 아예 집에 있으면 있겠다는 것과 같다.

현대사회에서 문맹이란 소리를 듣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컴퓨터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는 단순히 이름 그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적인 계산기이다. 장난감에 불과하고 국민학교 아이들이도 가지고 노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가지자. 친해지려고 노력하자.

장례절차와 비용

유창립

모든사람이 죽음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 않을것입니다. 특히 한국사람들은 어른들앞에서 장례에 관해 이야기하는것을 불경스럽게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살아계실때 상의하여 두는것이 비용도 적게들고 또 호도하는 길입니다. 한국에서 장례를 치를때 친지와 동네사람들이 대들어서 모든일을 담당해주므로 가족들이 하는일은 그리 많지않으나 미국에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허가를 받은 자이외는 합부로 손을 못대게 합니다.

장례절차는 일반적으로 시신이 병원에로부터 장의사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되는데 이때 가족의 허락이 필요함니다. 장의사는 약품처리와 열콜화장을 시켜 살았을때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여 관에 안치시킵니다. 가족은 수의를 준비해 주어야하고 평시에 가까이하던 물건들(예로 성경, 찬송가)을 관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가족은 장의 카운슬러와 면담을 하여 장례일시, 장소, 집례자, 품급반주자, 안내지작성, 운구자 6명 선정, 관 선택, 신공고, 비석선택, 비문작성, 호위 싸이카배정등 50가지가 넘는 결정들 그 자리에 서 해야됩니다.

장례식후 운구차를 선두로 조문객 차들이 행렬을 지어 장지로 가서 간단하게 하관의식을 갖추고 미리 파놓은 묘지에 관을 내립니다. 땅속에 관을 그대로 묻는 것이 아니고 씨멘트벽으로 사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관에는 흙이 직접 닿지않습니다. 묘비는 씨멘트 뚜껑위에 흙을 덮은 후에 그위에 없게됩니다.

장례를 치르고나면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생정보험신청을 하게되는데 사회보장국에서 나오는 장례보조비도 사망확인서를 받은후에 수속을 밟게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절차를 미리 준비하여두면 후에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모든것이 시간이 흐름에따라 값이 올라가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그만큼 이익을 보게됩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뭘 그때 생길 문제에 대해 염려하느냐고 하지만 결국은 남은 가족들에게 그 부담을 남겨놓는것입니다.

묘지선정을 결정하고 난후에 마음에 걸리는것이 없이 평안해야 좋습니다. 낮은지대는 불때문에 피해야 되겠지만 미국에서 좌 청룡, 우 백호를 찾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수의를 일찍 준비해놓으면 오래산다는 관습이 있지만 삼베로 수의를 만들 필요는 없고 보통때 즐겨입던 옷이 무난함니다. 내의와 양말도 준비하나 구두는 필요없습니다.

장의회사는 큰 회사를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묘지 및 비석관리를 잘해줄라면 작은회사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풍족히 관리비를 못합니다. 장의회사에 신상기록카드를 비치해 놓으면 상을 담했을때는 전화 한번으로 모든것을 장의사가 알아 처리하므로 가족들이 왔다 갔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분들은 미리 연락을 취해 주시면 정부기관에서 장례비용중 많은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상을 담하고난후 연락을 취하면 서류준비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만일 주말이 끼어있으면 일은 난처하게 되므로 꼭 사전연락이 필요합니다.

장외에 드는 비용은 묘지, 비석 그리고 장례식 비용 이렇게 셋으로 분류됩니다. 묘지는 땅을 사게 되는 것이므로 위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마운트레이크 테라스 뒤에 있는 한국인 전용묘지 1기 가격은 4백불이고 여기에 묘지 영구관리 비용이 가산됩니다. 비석은 화강암을 사용하면 하는데 물 종류에 따라 4등급이 있습니다. 둘째 등급으로해서 1인용 비석은 380

불, 부부 2인용은 655불입니다.

비석을 안치시키는 시멘트 작업비가 70~100불, 비석영구관리비 20~30불이 있습니다. 비석에 영어이름, 출생년도, 사망년도를 새기는것은 비석값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글이름을 새기는것은 한자에 4불씩 듭니다. 십자가, 꽃, 경치등 그림을 새기는것은 무난한것으로 35불 정도면 됩니다. 비문, 성경구절 등을 새겨넣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알파벳 하나에 1불씩 계산됩니다.

장례식 비용 중에서는 관값이 가장 많고 또 여러층이 있는데 팬찮다고 하는것이 1천불 전후됩니다. 시신운반과 시신처리 390불, 장례식장 사용 및 장의사 인건비 700불, 묘지 파고 묻는 비용 286불, 묘지안 시멘트 벽 공사비 325불, 사망신고서 첫장은 11불에 추가분은 6불씩, 신문광고 약 40불, 호송경찰 싸이카 비용등

모든것을 합쳐서 장례식 비용은 관값에 따라 3천불 내지 3천5백불정도 듭니다.

여기에 묘지, 비석값을 합치면 총금액 4천불 내지 5천불은 있어야 한사람 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위에 없는 꽃은 가족들의 결정에 달려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주문해야 됩니다.

이 모든비용은 현재 시세이므로 늘 갈을수는 없습니다. 현시세로 일단 계약을 하고 형편에 따라 얼마씩 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을 당하고나면 가족들은 당황하게되고 또 장례준비로 바쁘므로 장의회사에서는 슬슬 필요없는 비용을 가산하기도 하고 또 빼야될 비용을 빼주지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중에 야박스럽게 굴수없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것이니까 속이는것은 물론 아니드라도 어리숙하게 당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

즐거운 여행의 친절한 안내자

한국 여행사

지역과 관계없이 한통의 전화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즉시 우송하여 드립니다.

- 이민수속 • 재정보증 • 유럽관광 • 가족방문
- 호적번역 • 시민권 • 미국내 관광안내 • 기타수속대행



KOREA TRAVEL

P.O. Box 2344

19410 36th Ave W. #11 Lynnwood, WA 98036-2344

(206) 775-5541 (Everett) (206) 789-2012 (Bellevue Federal Way)



LEARNING-AT-HOME IDEAS FROM YOUR CHILD'S TEACHER AND THE EDITORS OF SCHOLASTIC NEWS

10 Ways To Help Your Child with Homework

Kids often think of homework as drudge work. Some of them will try to do anything to avoid it. But homework gives kids a chance to practice the academic skills they learn at school. That's why a parent must take an active role in making sure it's done. Are there alternatives to constant nagging? Here are 10 tips to help your kids get homework done and turned in on time.

1. Help your child develop the homework habit by asking about homework when he or she comes home from school. It shows you are interested in what was learned.
2. Provide a study space where your child can work quietly. Find a space that has good lighting and sufficient room for materials such as papers, pencils, and erasers.
3. Pick a good time for doing homework. Consider the amount of homework your child has to do and allow enough time in his or her schedule to complete it. Establish rules against phone us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records until homework is finished.
4. If possible, make available reference materials such as an atlas, dictionary, and encyclopedia. If these materials are needed but unavailable, schedule time to take your child to a public library.
5. Encourage your child to consider the homework assignment carefully before beginning work. Ask your child: *Why was this assignment made? What information does your teacher expect you to learn?* After the assignment is completed, help your child review what he or she learned from it.
6. Observe your child as he or she works. Does the work seem too difficult? If it does, it may be an indication that your child doesn't understand what was taught in school. Check with his or her teacher to find out how well your child understands the materials that were taught.
7. If your child rarely has homework, check with his or her teacher to find out if it is being completed at school during free periods. If your child continuously loses homework or forgets to bring it home, purchase a back pack or tote bag for books and homework.
8. Never do your child's homework assignment. It's fine to answer questions and supervise his or her work, but make sure the homework is completed by the child. Homework helps your child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If your child's not remembering when homework is due is a problem, buy a calendar and encourage your child to mark the days when assignments are due.
9. Encourage your child to develop a positive attitude toward homework. Although a teacher may check or correct homework, that is not the main point. Stress the fact that homework is valuable because it helps the child practice skills and acquire information.
10. Finally, never rush your child when he or she is doing homework. Make it a relaxing time. Let him or her know that sloppy work is unacceptable. But also praise homework that is done well — it's a good way to build self-esteem.



3. Pick a good time for doing homework. Consider the amount of homework your child has to do and allow enough time in his or her schedule to complete it. Establish rules against phone us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records until homework is fin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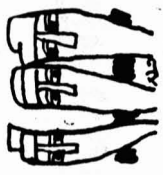
4. If possible, make available reference materials such as an atlas, dictionary, and encyclopedia. If these materials are needed but unavailable, schedule time to take your child to a public library.

5. Encourage your child to consider the homework assignment carefully before beginning work. Ask your child: *Why was this assignment made? What information does your teacher expect you to learn?* After the assignment is completed, help your child review what he or she learned from it.

7. If your child rarely has homework, check with his or her teacher to find out if it is being completed at school during free periods. If your child continuously loses homework or forgets to bring it home, purchase a back pack or tote bag for books and homework.

— Nicholas P. Criscuolo
Supervisor of Reading
Public Schools
New Haven, Connecticut





한국의 「느헤미야」는 언제 올 것인가?

김기태
(외대교수·두레성서모임 회원)

잠 다란 「캠퍼스」의 길 바닥에는 비명에 떨어진 낙엽들이 추한 모습으로 무심한 행인의 발길에 차이고 있다. 늦가을의 어느날 한해를 마감해 보면서 다시는 금년과 같은 한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빌어 보는 나는 「캠퍼스」 한 구석 차디찬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옆에 앉은 제자의 손을 꼭 잡아 보았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우리의 소원이 긴박하다 하여도 자네들은 오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사는 것이니 열심히 연구하고 인격을 닦아 자네들의 시대가 되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네" 이것은 한갓 나 자신의 꿈일 따름이다. 요즈음 대학의 분위기는 낭만이 사라지고 살벌한 감을 느낀다.

똥구는 낙엽사이로 온갖 종류의 공고문들이 벽마다 심지어 길바닥에도 뽁뽁하게 붙여져 있다. "O과 종강 파티" "OO고등학교 출신 환송회 회비 1,000냥" 등등...

이런류의 친목 모임의 공고문에서는 그래도 그늘끼리의 정을 나누어 가져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엿보인다. 때를 같이하여 학생 회장 선거 「시즌」 인지와 기성 정치인 못지 않게 현수막에 자신이 진정한 민주 투사임을 알리고 제각기 선거 공약을 짜뒀던 문구로 표현하고 있다.

"해방" "반미" "미제국주의 타도"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철이라 외부 정치적인 구호도 많이 보인다. "거국중립 내각추진" ... 등이 캠퍼스를 수놓았다. 그러나 이젠 아예 감각이 둔해져 버리긴 했으나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나 점칠 수 있는 공고문이 그래도 눈에 띈다.

"군사 정권 종식 제0차 대회", 곳 : OO광장, 때 : 오후 3시 30분"

용선과 성복 사이를 오가는 낡은 전동차에서 내리면 전투경찰을 실은 담장차 2~3대가 6.29이후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가 요즈음 매일같이 눈에 띈다. 이런 날이면 으레 조교는 양초, 치약과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 민민투인지 자민투인지의 학생들이 연단을 준비하고 민중학생

들은 모이라고 마이크로 알린다. 연단 뒤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애국가의 합창으로 실친 대회는 시작된다. 검은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연사는 불길 같은 열변을 토하고 구호를 외친다. 연사를 따라 청중은 3번 연창한다. 단번에 큰일이라도 벌어질 듯한 구호들이다.

1시간을 넘게 계속된 실천대회는 약속이라도 한 듯 교문을 사이에 두고 중무장한 전투경찰과 땀싸움(?)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땀땀하는 전투경찰의 최후단 발사의 소리와 이를 피해 흩어지며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대격전이 벌어진다. 길거리가 어지럽고 유리 조각, 돌맹이, 최루탄의 빈 껍데기 등이 흩어져 있다. 수위 아저씨는 소방용 호스로 물을 뿌리며 빗자루로 열심히 거리를 쓴다. 「캠퍼스」엔 정적이 다시 찾아온다. 가로등 불빛에 이름모를 별레들이 조금전의 대 격전을 모르는 듯 발빛을 향해 뻗고 있다. 이렇게 하여 「캠퍼스」의 하루는 끝난다. 언제부터인가 대학은 전장으로 변했고 부도는 최루탄으로 쪼든지 오래다. 「캠퍼스」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어 끝나는 나날을 그저 그들간의 한탕 놀이로 보고만 씩 웃어 넘겨 버리기에 안타깝다. 단지 그 어느 몇 사람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해도 괜찮을 것일까? 이를테면 으레 본인은 이 민족과 백성의 장래에 대해 대단히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김진홍 목사의 말씀이 생각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이 되면 밤낮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지친 모습으로 나타나 「크리스찬 리더십」을 걸러 내시려고 열변을 토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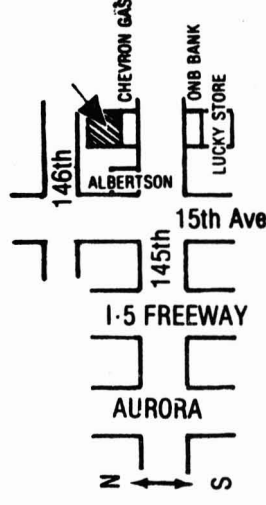
얼마전 인구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2만천여개의 개신교 교회와 6백4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2.6%가 종교 인구이며 그중 기독교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제 이들은 신앙을 통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한 신앙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과연 한국의 「모세」는 한국의 「느헤미야」는 언제 올 것인가?



한국·일본·미국 편취취득 20여년 경험으로
항상 여러분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선 희 미 용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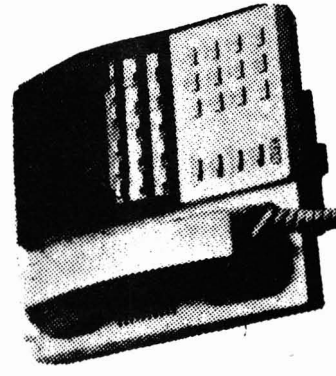
남녀 헤어컷·신부화장 맞사지전문
피부미용상담



367-2168

1551 146th St. N.E.
Seattle, WA 98155

북태평양 전자통신



철저한 사후 관리
저렴한 가격
무료 전적
최신 최고의 성능

신규 전화 설치 - 고장수리 - 전화이전 중설
Fax 설치 판매
BUSINESS TELEPHONE · 공중전화설치
사업용 알람 및 보안 TV 판매 · 설치

사업체 · 그로서리
모텔 · 사무실
병원 · 학교
교회 등

NORTH PACIFIC ELEC. & ENGRG.CO. INC.
북태평양 전자기술주식회사
NORTH PACIFIC (206) 542-9433
17010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중풍을 피하는 지혜

정재영

〈인빈당 전제한의원 원장〉



사람구실을 하려면 호적을 가져야 한다. 호적에는 출생, 결혼, 사망이 세가지가 꼭 기재되기에 누구든지 피할수 없는 인생행로로 받아지고 있다. 살아가는데 호적의 과정을 겪는중에 우리의 신체는 꼭 지나가야되는 두가지 문이 있는데 첫째 문은 유아기에 통과해야하는 「홍역」이다. 홍역은 별게아닌것처럼 받아지고 있는것은 예방접종이라는 간단한 방법이 현대의학에서 쉽게 해결하여서 통과하기가 쉬운데 둘째 문은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신체적 조건들이 지나가다가 이중에서 장년기 또는 노년기에 통과하여야하는 크고 높은 문인 「중풍」이다. 중풍은 정도에 따라서 병으로써 표현되는 종류가 있고 알게모르게 지나가는 약한 상태의 종류가 있다.

그러면 중풍이란 무엇인가? 풍(바람)을 맞은(적중) 상태를 말한다. 풍이란 무엇인가? 정신, 근육따위의 감각에 이상이 생긴병, 즉 풍병의 줄인 말이다. 즉 뇌일혈로 생기는 병이다. 반신 또는 전신의 한 국부가 마비되어서 감각을 잃게되는 것을 말한다.

중풍의 원인은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손가락이 마비되고 또는 거북한 것을 깨닫거나 또는 사용이 잘되지 않으면 3년내에 반드시 중풍이 일어날 징조인 것이다. 중풍은 반드시 미리부터 징조가 나타나는것으로 수족에 힘이 적거나 혹은 기욕이 약간 당기는것은 모두 원인이 되는것이다. 특히 수족이 마음대로 놀려지지 않거나 혹은 팔이나 어깨나 다리 뼈나 손, 발가락등이 거북하거나 구안와사하고 언어가 분명하지 못하거나 가슴이 번민하고 답(가래)를 계속해서 토하거나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비록 당장에

졸도하고 혼미하지는 않아도 중풍이 발생할 날은 받아놓은것과 같은것이다.

중풍에 걸리기가 쉬운사람은 노년기에 분하고 원통하여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몸에 살이 쪼서 비대한 사람, 50세가 넘어서 기운이 약해진 사람(중풍체질은 얼굴이 붉고 목이 짧고 몸이 뚱뚱한 체질이 많이 걸린다는게 전설이다).

중풍에 걸려도 고치기가 쉬운사람은 얼굴에 오색이 나타나고 표증이 있으면서 풍한을 싫어하며, 몸의 앞을 맞았거나 혹은 몸의 뒤에 맞았거나 혹은 몸의 옆에 맞았거나 사지가 구부러져서 굴신을 못할때는 비교적 고치기가 쉽다.

중풍에 걸려서 고치기가 어려운 사람은 입술을 거두지 못하고 혀가 구르지 않아서 실음하고 코가 냄새를 분별하지 못하고 귀가 먹고 눈이 어두우며 대변, 소변이 다 굳어지고 힘든것은 난치에 속한다.

중풍에 걸려서 위험한 사람은 졸도하고 와사하며 말하지 못하고 몸이 연한것인데 이런경우에 땀이 나면 살게되고 땀이 안나고 몸이 강직해지면 죽게되고 또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구멍이 막히고 혀가 굳어져서 말하지 못하고 이런경우도 땀이나고 몸이 부드러우면 살게되고 땀이 나지않고 몸이 강직해지면 7일만에 죽게된다.

유의할것은 중풍이 치료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재발하고 재발하면 더욱 중태로 악화되니 항상 약을 복용해서 예방하여야하며 특히 중풍에 걸리면 음식을 많이 먹게되는데 많이 먹을수록 더욱 병이 심해지기 때문에 음식조절에 노력해야 한다.

인빈당전제한의원

부설: AIDS 한방연구원



진맥이 정확하여야 치료가 됩니다 무료 진맥

특별진맥과치료

● 심장병 ● 중풍 ● 좌골신경통 ●

(206) 588-1111

원장 정재영 한의사

인빈당전제한의원

9312 S. Tacoma Way # 115 Tacoma, WA 98499

코리어나 플라자	○ 부한식품
So Tacoma Way	○ 신신플라자 신축지
Exit 127	Exit 129
← Olympia	Seattle →

(야간)
581-5124

진맥시간:
(월~토)
오전 10시~오후 8시
(일요일)
오후 3시~오후 8시

두레마을 돕는회에 가입합시다

두레마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만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분들의 공동의 작업이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활발교회는 두레마을을 열면서 <두레마을 돕는회>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희비로써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써 이 일에 동참하실 동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일생을 이 마을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두레마을의 회원이 되는길

1. 매월 3,000원 (미국에서 5불) 이상의 정하신 만큼 회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2. 회원이 되신 후에도 사정에 의해 언제든지 자유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3. 두레마을 돕는일에 가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길이 있습니다.
 - 1) 마을, 직장, 교회, 학교 등에서 뜻을 같이하는 10명 이상으로 모임을 만드시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 2) 개인으로 참여 하실분은 가까운 지역의 두레모임에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남양만 두레마을 본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두레 마을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두레마을 회보 및 저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 연 락 처

남양만 : (170-26)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1111 활발교회 김진홍 목사
 의정부 : (130-31)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연곡리 산1-1 두레교회 한응수 목사
 미국 : Hwalbin Community Mission C/O Dr. J.S. Park

1527 Fairway Dr. Lima, Ohio 45805 TEL. 419-991-0696

L. A. 지역 : Hwalbin Community Mission

P.O. Box 143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213) 737-7297, (213) 386-0158

Chicago 지역 : Hwalbin Community Mission

P.O. Box 671 Glenview, I.L. 60025
 TEL. (312) 769-3141 (312) 246-2834

Seattle 지역 : Hwalbin Community Mission

P.O. Box 25695 Seattle W.A. 98125
 TEL. Seattle (206) 364-7880

Mt. Lake Terrace 775-6153

Federalway 941-9879

Canada 지역 : S. C. Shim

465, Vaughan Rd Toronto ONT
 M6C. 2P5 심상철 (416) 653-5919, 노철언 (416) 759-4905

두레마을 씨아틀 후원회 회장 김간난

MR. 韓仁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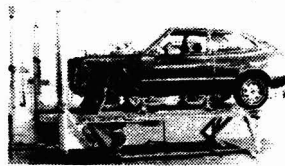


한인회관전립기금 헌납자 명단

(무순·존칭생략)

구범회(74년 회장)..... \$1,000	정연숙(에드먼드거주)..... 20	무명씨..... 300
민준기(이사)..... 2,000	우광희(에버렛거주)..... 100	김청작..... 14,000
최학기(84년 재무)..... 2,000	킷삼지역부인회..... 210,47	윤종길..... 100
한원섭(부이사장)..... 5,000	장대근..... 100	유태윤..... 100
이동립(83년 이사장)..... 10,000	한상국목사..... 50	맹병규..... 100
해동수산(정법순)..... 500	최홍련..... 50	김벌리이발..... 100
한국여행사(박용준)..... 200	최진진..... 10	씨택한우의..... 300
한국일보직원일동..... 2,000	최진호..... 10	Oak Harbor 한인장노교회 교인일동300
이용일(A-1 Body)..... 300	최화숙..... 10	박상학..... 120
최주찬(회장)..... 30,000	최봉숙..... 5	이유순..... 50
김종만(이사)..... 2,000	백광호..... 2,000	강옥희..... 10
이중헌(전립위원)..... 2,000	이정언..... 100	이만엽..... 25
백용기(이사장)..... 3,000	이중환..... 300	황규녀..... 10
양태승(80년 부회장)..... 1,000	유홍근..... 500	류갑수..... 50
윤상인(이사)..... 3,000	김형달..... 1,000	박성진..... 10
박태호(86년 회장·섭의)..... 3,000	Mrs. 머린스..... 1,000	김성빈..... 10
권오문(이사)..... 2,000	이우호..... 100	신천식..... 10
오준걸(85년 회장)..... 3,000	레가스피..... 50	박창복..... 25
심재환(사무차장)..... 1,000	김현중..... 3,000	신정희..... 10
김간난(이창희 초대회장부인)..... 1,000	백인홍..... 100	김천순..... 5
정병국(사무총장)..... 1,000	한혜영..... 5	염순분..... 20
신호철(75·85년 회장)..... 10,000	한혜민..... 5	최봉윤..... 10
로젠홀츠(부녀부장)..... 1,000	자니슨..... 10	안정영..... 10
홍인표(전이사장)..... 5,000	이춘향목사..... 15	홍성근..... 10
심영식(부회장)..... 2,000	장정인..... 20	정열철..... 20
이석주(부회장)..... 1,000	박석우..... 2	황봉녀..... 5
황수철(전부회장)..... 2,000	이봉수..... 5	조신채..... 50
축구협회(회장 제임스리)..... 5,450	김단열..... 10	홍순임..... 10
오계희(84년 회장)..... 500	유현석..... 1	윤옥봉..... 10
민학수(86·87년 이사)..... 1,000	이재봉..... 20	안분례..... 10
김홍열(대한여행사 전상의회장)..... 2,000	김형식..... 20	김길녀..... 10
노희규(전중부위심턴 한인회장)..... 1,000	이낙준..... 10	김희도..... 20
김희범(스포케인 한인회장)..... 500	김정배..... 20	김금녀..... 30
이영국(태권도 사범)..... 500	김윤숙..... 10	염말다..... 10
정연발목사..... 200	임재선..... 20	최정숙..... 10
오정우(신세계여행사)..... 100	조한천..... 20	이임자선..... 5
신광재(전태코마한인회장)..... 200	박성득..... 20	황숙환..... 10
이규조(연합장로교회장로)..... 1,000	무명씨..... 100	민주순..... 5
허남일(101 바디숍)..... 500	(이상 18명 북부시애틀 제칠일안식일	박일범..... 20
99 오토바디..... 100	예수재림교회 교인)	장기호..... 20
주노리미용실..... 100	Koam-TV..... 500	김한수..... 30
정운제(시공무원)..... 100	안정호..... 100	박경계..... 10
시애틀 순복음교회 교우일동..... 500	고봉식..... 2,000	윤순보..... 10
황병조(세탁업)..... 100	윤광남..... 5,000	박판갑..... 10
류창명(보험업)..... 1,000	이순모..... 5,000	(이상 36명 스노호미쉬 노인회원)
임소기(바텔거주)..... 100	양희영..... 3,000	
김광천(시애틀거주)..... 20	박종기..... 100	
김만식(벨뷰거주)..... 20	김동협..... 1,000	
경희대동창회..... 300	장진섭..... 300	

Lee's A-1 AUTO BODY



CHIEF EZ LINER

UNIBODY
 COLLISION
 SPECIALISTS

- Foreign & Domestic
- Insurance Work
- Towing Available

OPEN SATURDAY

MON.-FRI. 8:00-6:00

SAT. 10:00-4:00

742-0634

15107 HWY99 • LYNNWOOD



PAINTING BOOTH

EXPERT
 COLOR
 MATCHING

여러분에게는 항상 한인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어떤문제가 있으십니까?

(206) 362 - 4500 한인회

(206) 839 - 6161 상공회의소

○ 사업에 관하여?

○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 직원이 필요하십니까?

○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위와같은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최선의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榮味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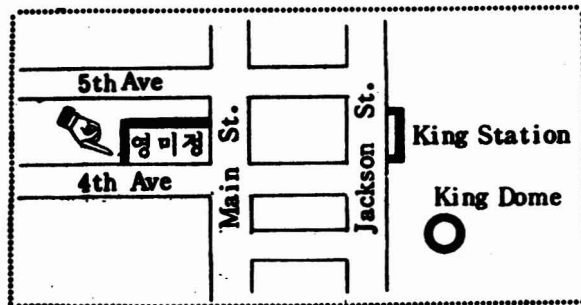


영미정

YOUNG ME RESTAURANT

- 한식전문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400명 이상 한자리에 모실수있음)
 - 20 ~ 40명 회합할수있는 특실
 - 넓은 주차장 시설
 - 나이트 클럽 (3인조 밴드및 가수)
- 대표 조 영

※ 경험있는 웨츄레스 모집함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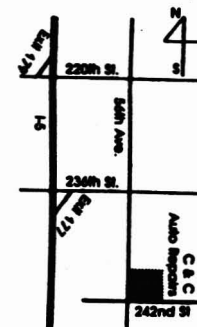
금요일 · 토요일은
새벽 3시30분까지
해장국을 합니다.

623-3112

220 4TH AVE S SEATTLE, WA 98104

== 목 차 ==

1. 신년인사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한인회장 최주찬
2. 신년인사 "우리의 집 마련에" 이사장 백용기
3. 88년도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조직표
4. 신년메세지 "선진조국 창조를위한 전진의해로"
주미대사 김경원
5. 신년메세지 "미국속에 위대한 한인과시를"
총영사 김홍수
6. 88년도 한인회 큰행사 소개 사무총장 정병국
7. 회고문 "축복받은 우리의 할일" 초대회장 고이창희
8. 제언 "하나가 됩시다" 전한인회임원 이신남
9. 생활상식 "유언장 작성요령" - 편집실 제공 -
10. 세무상식 "세금보고요령" - 세무상담반 제공 -
11. 생활안내 "봄철 Beauty Guide"
12. 한인회 동정 "이런일 저런일" - 사무국제공 -
13. 보람에 산다(1) - Lee's 전기서비스편 -
14. 앞으로의 사회와 교포사회의 대처방안 - K System 김선태 -
15. 장례절차와 비용 유창립
16. 아동지도방법 - 편집실 제공 -
17. 한국의 느헤미야는 언제올 것인가? 외대교수 김기태
18. 한방상식 "중풍을 피하는 지혜" 한의사 정재영
19. 한인회관 건립기금 헌납자명단
20.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21. 나의 작은 소망 한글학교교사 유은애
22. 에세이 "미역을 따는 손길과 미역을 심는 마음"
23. 편집후기



최 창 만 Auto Repair (C & C)

금번 C & C Auto를 새로인수하여 교민여러분께
봉사 코져 하오니 많은이용을 바랍니다.
최 창 만 배상

778-4695

Monday-Saturday 8-5 Sunday Closed



한인회비 및 찬조금 납부자

이동립	100
한만섭	120
최주찬	5,300
이익환	100
김정부	20
박태호	100
윤상인	500
김형달	500
심재환	100
손기남	100
심상희	20
김현길	50
James Lee	500
김종만	520
정병국	100

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 통역·번역(병원, 법정, 정부사회복지기관, 개인사정에 관련된 통역 혹은 번역)
- 상담(개인, 결혼, 자녀, 청소년, 이민, 건강, 의료, Welfare 등)
- 사무(타자, 서류정리)
- 신문스크랩, 자료기록·보관
- 회보 편집, 작성
- 전화 intake 등 사무실 관리
- Ride(노인이나 차가 없는분들의 병원, 주정부기관 등 출입을 위해 운전해주실분)

(206)784-5691

나의 작은 소망



유은애 (한국학교 교감)

1983년 3월 개교와 함께 인연을 맺은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드나보다. 지난동안 보고 느낀 것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학교는 성장하는 한국 교포사회에 대한 봉사과 전도의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한다. 학교이름 자체가 한글학교가 아니고 한국학교이다. 그저 한글이나 깨우치자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모든 것 즉 한국인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지난 5년동안 나름대로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그때그때 적합한 교재등을 적시에 구해 가르칠수 있었고 나름대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또 토의해서 교수방법을 창출해내고 해서 이제 교과과목까지도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감히 말할수 있겠다. 겨우 국민학교 과정은 체계를 잡았으나 중학 이상의 과정에는 아직 끝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곳 시애틀 한국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여 3시간동안 국어, 한국동요, 체육, 서예등 나름대로 문화교육에 중점을 다해가고 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운동회를 갖기도하며 구정이나 추석에는 또 우리풍습을 재현하며 배우기도하고... 6월 종업식때는 종합평가를 통해 1년 동안 배운 말씀씨, 글씨씨를 자랑하기도 한다.

여기서 하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단합하여 네 자식 내자식 가리지않고 하나가 되곤한다. 특히 몇몇 학부모는 정말 뜨거운 성원으로 여러가지를 도와주어 한해가 지날때쯤은 모두가 감사를 드리곤한다.

여기서 왜 한국학교 교육이 절실한가에 대해 느낀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들이나 자식들이나 어차피 이질문화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너무나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 누구나 느낄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미국에서 한국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공통된점은 「미국속에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바로 미국속에 한국인이라는 가치관 내지는 사고방식을 정확히 심어주어야겠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한국식의 사고방식에 부모님들과 반미국식 반한국식의 사고방식 또는 풍습속에서 자라난 그들과의 생활에 공통된 이해점을 찾아 생활에 안정을 가질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 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주변에서도 많이 볼수있고 또 신문지상에서도 가끔 눈에 띄는 청소년들의 문제, 바로 이것을 미리 예방하고 그 문제점을 조기발견 치료 내지는 처방을 부모자식간에 알아보자는 것이다.

즉 절대 부모가 원하는식이 아니고 절대 학생이 원하는식이 아닌 복합식을 추구하되 그들의(어린이들) 주장도 깊이 생각하고 들어줄수 있는것은 부모가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교사, 학생, 학부모는 소위 삼위일체로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풍습, 문화, 글을 가르치지만 한국의 문화풍습이 절대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문화풍습을 배우고 공부하지만 좋은것은 따르고 좋지않은것은 여기것을 배우고 즉 마지막 선택은 학생 스스로가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

를 감안할때 「미국속에서 성장해가는 한국어린이」란 엄청난 어려움도 있으나 소위 삼위일체속에 합심이 되어 어느곳에서든 이와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피부로 실감을 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준비된(본국에서 보내준, 영사관에서 제공된) 교재등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어린이들에게 공감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이며 또한 교육중 어느 학부모는 단시일내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건 나머지 1년이란 기간이 끝난다음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본래 교육이란 장시간을 두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이것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는 바로 그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하기를 몇년하면서 어렵고 고달픈적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때쯤 전혀 한국어를 못하고 끽끔이던 아이들이 한마디씩, 더구나 애국가나 동요를 힘차게 합창을 할때면 그저 눈물이 나도록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나를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은 그맛을 알기에 또 그 작은보람을 느끼기에 주말을 포기하고 어린이와 강당에서 교실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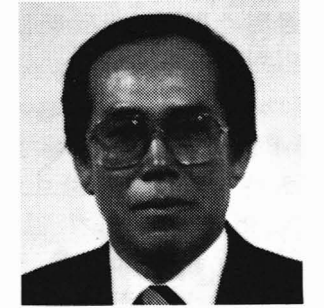
오늘의 학교가 있기까지 오래전부터 걱정해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희생의 노력을 다하신 선각자적인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 한국학교를 지켜보아주시고 또 선한길로 인도하여 주실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린다.

황동규 에세이



미역을 따는 손길과

미역을 심는 마음



「아메리칸 드림」과 자연의 찬미

American Dream 에 부풀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김포공항을 떠나 희망과 호기심의 땅 이곳에 첫발을 디딘 얼마후 군대 초년병시절 주번사관 만큼이나 우러러보이던 이민 선배들의 친절하고 지형설명을 들은후 72년도형 「프리마츠」 중고차에 천막 하나와 온가족을 싣고 올림피 반도를 향하여 참으로 어설픈 「캠핑」에 나섰다. 울창한 숲, 잔잔히 물결치는 아름다운 산간호수, 석양노을의 바닷가, 「패리」 선창에서 바라보이는 「다운타운」의 야경, 모두가 우리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되어 한없이 행복해보이는 아내와 떨어지는 가을낙엽을 보고 눈물짓는 나이가 된 딸들이 기뻐 뛰노는 모습을 바라볼때면 나는 속으로 '미국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에 자못 흐뭇하기만 했다.

말로만 들던 바다낚시가 그렇게 신기할수가 없고 바닷가에 깔려있는 조개와 굴들, 밥상위에서나 보는것으로만 알았던 미역과 김이 손에 닿을 거리에서 파도에 밀리며 너울너울 춤을 춘다. 산에 가니 년륜과 위엄이 있으며, 바다에는 박력과 포용함이 있고 호수에 이르니 시정이 흐른다.

모두가 풍요하고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생동감이 있으며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다우며 정과정이 서로 만나는 흐뭇함이 있다. 산이 좋아 산에 오른다고 어느 산악인이 말했는가! 자연이 하도 좋아 미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던 나의 생각을 그후 한번도 바꾼일이 없다.

어느 해변에서의 「해프닝」

얼마전 반백의 친구들 몇사람이 자리를 같이했다. 국회의원 간담회를 무색케 할만한 굵직굵직한 「잇슈」를 내놓고 환담하던중 화제는 어느듯 급선회해서 그 옛날 어린시절의 낭만어린 고향산천에 이르렀다. 눈오는날밤 멀리서 들리는 기적소리의 정막, 얼음판의 팽이치기, 연싸움하던 애기등 그리고 뼈속새 우는 뒷동산에 서식하던 여러 동물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 주로 화제는 자연에 관한 모두가 그리운 얘기들이었다.

자연이 풍요했던 그 시절의 소박한 인심, 자연에 얽힌 동심어린 기억들이 꼬리를 물고 꽃을 피울때 한 친구가 들려준 평범한 얘기가 내 마음에 강하게 와 부딪쳐 자꾸 머리를 맴돌며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애기인즉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친구가 어느날 가족과 함께 모처럼 휴일을 택하여 창조주의 찬양이 절로 나오는 절경의 해변을 찾아 산책을 나갔단다. 아름다운 자연에 도취되어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사람들이 배를 타고 두루 다니면서 무슨 풀뿌리같은 것을 열심히 바다물에 던지고 있었다. 기이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려는 순간 한 노부부가 정색을 하며 이들을 향하여 "Are you Korean?"하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Yes, We are"라고 정중히 대답했더니 당신들 Korean 이곳에 얼씬도 말고 당장 이곳을 떠나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각중에 당하는 불변이라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있다가 정신을 차린후 그들에



오리엔탈 바베큐센터

Oriental B.B.Q. Center
★ Restaurant & Cocktail Lounge ★

시랑스런 한국식당

아늑한 분위기 · 푸짐한 밑반찬
한식 및 중화요리일체 · 불갈비
냉면 · 전골전문 · BBQ 일체

- 회의실 및 연회석 완비
- 넓은 자가 무료주차장
- 가족모임, 친목회식, 회갑연, 결혼 및 약혼 피로연, 기관접대연 환영
- 야외도시락 주문배수

771-3700

3828 196TH ST SW LYNNWOOD

RESTAURANT & COCKTAILS

OPEN 7 DAYS A WEEK 11:00~2:00 AM

대표 이종길

단체예약 : MRS. LEE

게 지금 당신들이 한말이 농담이 아닌것 같은데 무슨뜻으로 한말이나고 물었더니 통명스럽게 대답하는 그들의 사정인즉 이러했다.

이곳은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어서 물이 맑고 바닷가에는 조개가, 물속에는 해초가 서식하는 참으로 풍요한 곳이었는 데 어느날 갑자기 밀어닥치기 시작한 한국사람들이 조개를 잡아가고 미역을 송두리채 따가는 회오리를 거친다음 풍요했던 이 해변은 아주 삭막해져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끝에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판곳에서 미역뿌리를 구해다 이곳에 심고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사연을 다 들은 친구부부는 잠시 할말을 잊었다 얼굴이 붉어지는것을 억제할수가 없었던것은 그들이 정녕 한국사람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러나 이들은 이말을 듣고 그대로 넘길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훼손된 자연을 아쉬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코리언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여 마치 모든 한국사람이 한것처럼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분명한 인종차별이라고 강력히 항변했다.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소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왔으나 이 문제로 사회에 불의를 일으키는것이 결코 우리 한인사회를 위하여 유의함이 없음을 알고 그만 덮어두었다고 한다.

참으로 쇼킹한 얘기가 아닐수 없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생각난다. 어느 해변에서 일어난 「해프닝」, 이 값진 경험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흘려보낼수야 없지않은가. 그 옛날 「왓츠」가 주전자의 끓는물을 무관심하게 보았다면 증기기관차가 나올리 만무하고 조각가 「로댕」이 생각하는 인생의 고민을 뚫어보는 철학과 예술성이 없었더라면 보논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명작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왔겠는가!

문화민족의 역사와 긍지를 가진 한인 사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여러시각으로 조명해 봄으로 여기에서 교훈적인 의미를 찾는 우리의 노력이 참으로 바람직하다.

자연의 풍요와 축복의 조건

이민초기의 주말은 늘 산 아니면 바다로 나갔다. 산에 가서 고사리를 따고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고 계를 잡고 조개를 캐고 미역을 따다. 자연자원에 굶주렸던 우리에게겐 모두가 흐뭇했고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이 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구나! 절대적약 절대정치의 청교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그들의 후손들이 응답받았구나"하는 찬사가 절로 나온다.

이런생각을 하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 나라는 축복받아 이렇게 풍요한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두고온 우리의 산하는 어찌면 그렇게 메달라있나"하는 생각에 이르면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오늘도 산과 바다를 찾았다. 고사리를 따는 손질이 점점 빨라지고 미역을 판 보따리가 곱사등으로 한집이나 된다. 시간이 허용하고 힘이 미치는한 쉬지도 않고 움직이는 우리의 손길도 그 속셈을 알고 보면 여려가지다.

1년정도 먹기에 충분할만큼 비축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알뜰파, 이웃과 친지들에 나누어줘야 마음이 흐뭇한 인정파도 있고 나만 먹을수 있나, 조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내야지 하는 효성파도 있다. 마음들이 모두 곱고 가상하다.

자연을 즐기고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산수좋은곳을 찾아 가족, 친지들과 같이 즐긴다는 말은 갓 이민온 우리에게 좀 사치스러운 얘기로 들렸다. 이런 소비성 휴식(?)보다는 자연도 즐기고 밭상도 풍요히 채우는 다시말해 입도 보고 뺨도 따는 경제성 휴식을 하자는 발상을 굳이 나무랄것이 없고 오히려 겸소하고 실용적인 생활의 지혜라고까지 생각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에게 큰 깨우침이 있었다. 우리의 손길이가는곳에 아름답고 풍요한 자연이 멎들어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한것이다.

어느 해변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초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손길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는순간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울수가 없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만시지탄은 있었으나 그후 10여년동안 나는 한번도 자연자원에 손을 댄 일은 없다.

자연이 얼마만큼 제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풍요하느냐는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해주며 자연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는 그나라 국민의 민도를 말해준다해도 과장됨이 없으리라. 창조주로부터 은혜로 받은 영원한 자연자원을 잠시 거쳐갈 우리들이 잘 보호하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물려줄 의무가 있는것이다.

미역을 따는 손길과 고사리를 따는 우

교민동정 및 안내

1. 워싱턴주 음악인 동우회가 새로 임원진을 선출, 88년을 위해 출범했다. 회장에는 김영희, 총무 오혜원, 서기 한혜숙, 회계 안마리아씨등이 선출됐다.

2. 워싱턴주 태권도협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회장에 이정언, 감사에 이승우씨를 선출,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상호간의 단합과 상호협조에 주안점을 두는 한해로 하겠다"고 말했다.

3. 시애틀평강장로교회는 청소년회 주최로 다운타운의 극빈자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지난 1월16일 오후 시30분부터 시작된 이 식사대접에는 회원전원이 참석 자진봉사하여 170여명에게 식사대접 등 식사중 성가를 부르기도 했다.

4. 시애틀 한국학교(교장 김정태)는 지난해에 이어 학예문예지 「무궁화」를 발간했다. 동교는 1983년 개교하여 한인사회에 자랑이 되고 있으며 180명의 학생과 25명의 대 감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예지 「무궁화」에는 천진스런 어린학생들의 시, 창작활동, 서예, 편지문등이 실려있어 어린 2세 교육에 밝은전망을 보이기도 한다.

리의 깊은 정을 우리만은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역을 심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여야 한다. 크기가 10분의 1인치기량이라도 모자라는 계를 미련없이 바다에도 던지는 어린이의 모습속에서 그들의 준법정신과 절대정직의 생활태도를 배워야한다.

자연에는 창조주의 영원함과 숨결이 담겨있다. 자연이 사라지면 천심도 떠나고 순박한 인심도 풍요한 우리의 삶도 사라진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심오한 창조주의 섭리를 깨닫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순종하는 성숙된 문화민족의 모습으로 다같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5. Japan Auto Repair 로 알려진 최창만씨가 24107 56th Mount Lake Terrace 에 있는 C&C로 옮겨 영업을 한다며 많은 교민의 이용을 바란다고 한다.

6. 워싱턴주 축구협회는 지난 1월5일 린우드 B.B.Q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임스리 협회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회장은 앞으로 더욱 내실을 기하여 축구인의 단합된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으며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참석한 회원들이 회관건립기금으로 4백15불을 최추찬 신년 한인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밝은 來日을 尙해 精誠을 다하는 新聞



구독·광고 문의는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그랜드 식품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정육전문 취급점

소문난집

고기집

한국맛과
한국맛과
한국 흥을 판니다.

- 즉석에서 썰는 불고기와 갈비
- 각종 동양식품

Woong Ki Baik

- 정육부
- 생선부
- 동서양식품
- 야채, 과일부
- 살림도구
- 선물센터

365-1500

15202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HA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선진조국 창조위한 전진의 해로



김경원 <주미대사>

1988년 새해아침을 맞이하여 교민여러분 한분한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교민여러분께서 이곳 미국의 여러가지 낯설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과 근면으로 착실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또 상부상조하여 훌륭한 한인사회를 이룩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동안 조국은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현명하게 극복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민족의 긍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망의 88년 금년 한해는 국내적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통한 민주화된 국가발전을 이룩할 시발점이 될 것이며, 전세계인들의 화합의 축제인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성숙된 선진조국으로 발전할수 있는 해가 되리라는 점에

서 역사적으로 뜻깊은 해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서북미지역의 워싱턴주는 88년부터 역사적인 100주년 행사를 시작하며,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의 올림픽소개 및 한국민속에 슬픔 전시회 개최등 각종 경제, 문화, 예술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에대한 교민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로서 보다 성숙하고 단합된 교민사회의 모습을 보여줄수 있도록 다같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저희 공관으로서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혹시 본의아니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점이 있더라도 넓은이해로 많은 편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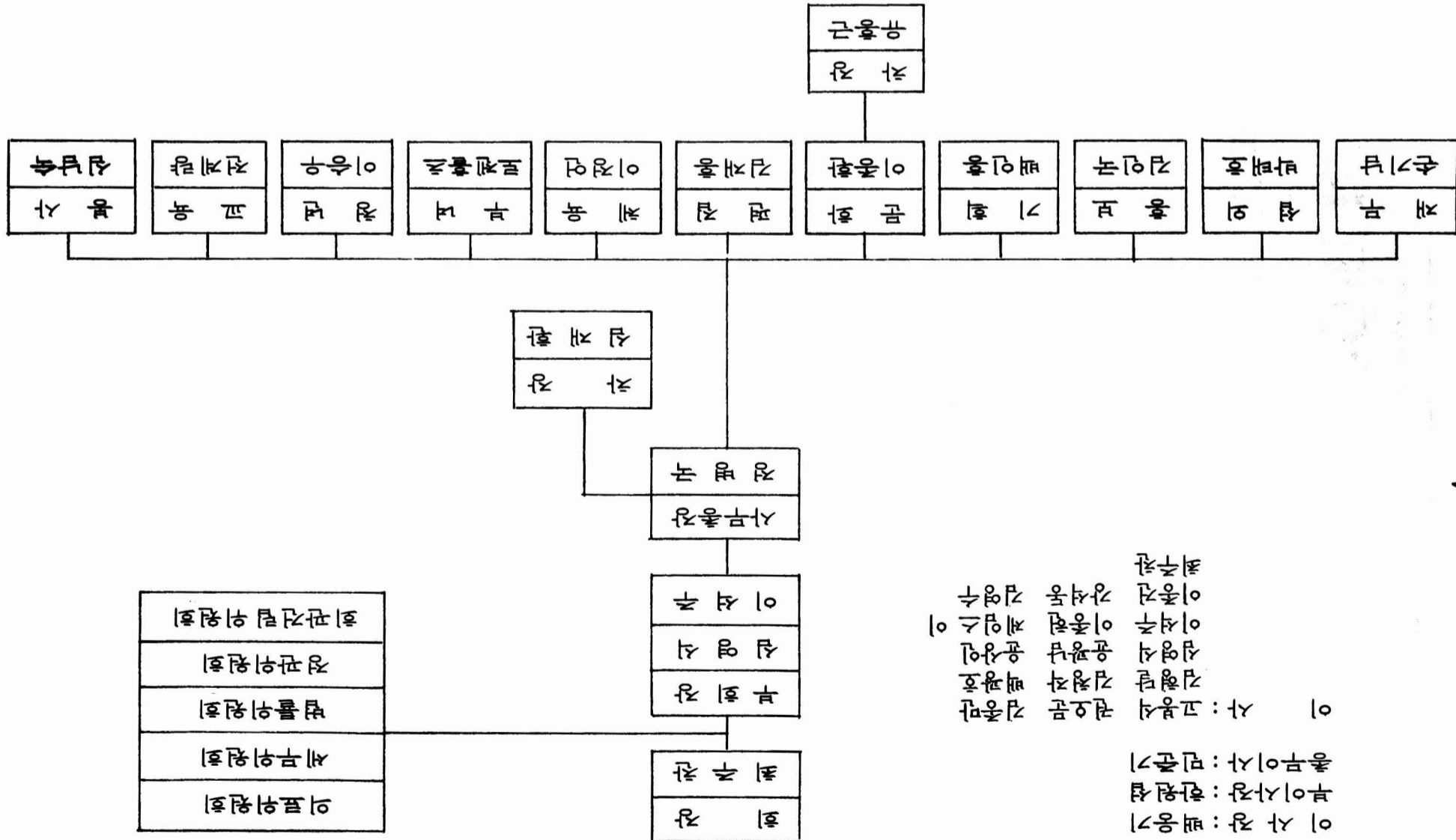
88년 새해에 더욱 다복하시고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의 올림픽 스타디움은 이제문을 활짝열고 제 24회 올림픽아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올림픽 게임을 통하여 고귀한 전통을 이어나가며 미래를 향하는 길에 빛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 환 · 안토니오 · 사마란치 —
(IOC 위원장)

88년 시인인문회 1기 기념회



미국속에 「위대한 한인」 과시를



김홍수 <주시애틀 총영사>

친애하는 재미동포 여러분, 격동의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어느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는 슬한 어려움을 슬기와 이성으로 극복해 냈으므로 우리민족의 위대함이 다시한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느바와 같이 지난 1987년은 여야간의 합의로 새로운 민주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한 자유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사상최초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이룩할수 있게 만든 역사적인 한해가 되었으며 전세계에 우리국민의 성숙된 정치역량을 보여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것은 화합과 단결의 정신으로 온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당면한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하여 전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재미동포 여러분들의 뜻과 성원도 함께 하실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한해동안의 정치, 사회의 소용돌이속에서도 80년초부터 추진한 과감한 개방화 정책에 힘입어 고도 성장을 지속한것이 크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한미통상관계는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로 인한 보호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전환정책과 수입자유화, 관세율 인하등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응책을 펴 나감으로써 원만하고 성숙된 동반자관

계를 지속할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미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되는 경제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재미교민사회도 조국의 발전 못지않게 지난 한해에도 양적으로 성장했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앞으로도 미국사회내에 가장 훌륭한 소수민족으로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자리를 굳혀 나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미동포여러분, 본인은 오늘 전세계인들의 화합의 축제인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 뜻깊은 새해아침에 우리조국이 밝은미래를 창조할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여러분께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분발하시어 성공하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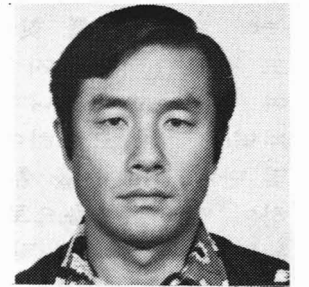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뢰하는 마음속에 성장하는 교민사회

88년도 한인회 큰 행사 소개

사무총장 정병국



금년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를 「불도저」 한인회라고 말하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최회장이 작년도에 회장이 확정된 다음부터 88년도에는 꼭 한인회관을 마련하겠다고 공사석에서 말을 했고 또한 금년도 시무식, 하례식 및 간담회때도 공언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임원이사들도 회관의 필요성을 깨닫고 현재 모금운동에 골몰하고 있으므로 다른행사에는 별로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인회 일이 회관마련하는것만으로 끝날수도 없고 또 다른행사도 중요함으로 금년도 우리 한인회가 수행해야할 몇가지 중요한 행사를 회보를 통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슨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한인회관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회장이 공언한바도 있고 이미 많은 독지가들이 기금을 헌납하기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해 알려진것만도 벌써 20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지역 교민전체가 모금캠페인에 참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만 1불씩이라도 회관을 건립하는데 기여한다면 회관마련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 사무실에서 3월말일내로 나가야 함으로 그 이전에 건물구입에 대한 윤곽이 나올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둘째는 한국의 날 행사를 범교포적으로 치루는 일입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뜻으로 전교포가 참가하는 종합체육대회를 벌이고, 아울러 주부백일장과 2세들을 위한 한글백일장을 실시하여 우리의 고유문자와 역사를 알게하고 동시에 우리의 얼을 찾게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교민 1세들이 무엇인가 2세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수 있는 보람있는 일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축구팀을 초청하여 친선경기도 하고 저녁에는 교민을 위한 연예프로그램을 짜서 풍성한 순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88 올림픽을 소개하고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을 보이기위해 Sea Fair 퍼레이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에 호돌이 벌룬, 모자, T셔츠, 농악기구등을 주문했고, 인력동원계획도 세웠습니다. 교민들이 이런행사에 많은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한인회보를 매분기마다 발간배부해드릴 계획입니다. 매년 한인회에서 연례행사처럼 회보를 발행해왔읍니다만 좀더 실질적이고 교민모두가 참여할수 있는 공기의 역할을 할수있는 회보가 되도록 편집을 하겠읍니다. 교민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원고를 한인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실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88 한인록을 발간하는 일입

Bellgreen PAINTING

• COMMERCIAL • INDUSTRIAL • RESIDENTIAL INTERIOR &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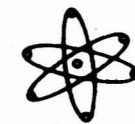
LANDSCAPING

ANNUAL LANDSCAPE MAINTENANCE CONTRACTS & BIDS

• LAWN CARE • FERTILIZING • WEED CONTROL • PRUNING

767-5645

“K”TV and VIDEO



- 각종 TV, VCR 전속
• 열가봉사, 무료견적
• 신속 출장수리
• 30년경력

월~토 : 8:00am-7:00pm

15200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구연기
☎ 363-2848

니다. 형식적인 한인주소록이 아니라 한 눈에 모든정보를 찾을수 있도록 편집하고 필요한 상식, 지식, 자료들을 입수하여 수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워싱턴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개인주소와 업소 및 단체, 협회등을 총망라하여 수록 편집하여 영구보존용으로 품위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각 업소 및 개인기재사항 양식이 시애틀 전지역에 있는 한국상점과 식당에 비치되어 있고 또 각 언론기관을 통하여 광고하고 있으므로 교민여러분이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인록에 수록되는 광고비의 일부를 회관전립기금으로 충당코져 합니다. 여섯째는 주부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코져 합니다. 해외생활에서 자녀교

육과 가정살림, 그리고 직업전선에서 여념이 없이 수고하고 있는 주부들에게 교양과 지식을 함양시킬수 있는 강좌를 실시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권익보장을 위한 여성협회 같은것도 창설하여 자체 운영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이밖에 아리랑의 밤 행사와 여러국경일 행사등이 있으나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교민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비웃거나 코웃음을 치는 일은 결국 자기자신에게 침을 뱉는 격입니다. 우리모두가 내집안일처럼 한인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양식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祝福받은 우리의 할일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압박과 설움과 고통을 당할 때는 세계에서 強大國이나 倭越國이나 西域과 교만한 나라들이 우리를 향하여 低能하고 柔弱하고, 게으르고, 식어져서, 축약없는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였었다. 그러나 우리도 그 強壓에서 해방되자마자 뛰어들었다. 세계정세의 趨勢로 인하여 우리의 國土가 分斷된 拉 격을 무릅쓰고, 또는 걸으려는 步고 속으로는 책취하여가는 경제적 세력도 헤쳐가면서 우리민족이 불과 四半世紀 동안에 國內과 국외로 발전한 것을 본때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자랑하며 뽐내게 된다. 우리 國체건설 방면으로 보나, 文化, 科學 發展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놀랄만하다. 先進國들이 놀라며 그들이 우리와 比較할 수 있는 水準, 次元을 높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민족이 海外進 步하는 곳마다 교회와 생겼고, 학생회가 생겼고, 직업단우회를 이 생겼고, 우리 한인회가 생겼다. 앞으로 더욱 새로운 方面으로 더 發展할 것이다. 同時에 이제부터는 內容充實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겠다. 이 방면으로도 벌써 진행되고 있다. 各敎會들은 벌써 예배당 建設 基盤을 모으고 있으며, 한인회도 벌써 會館 設置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모았다. 그런데 各敎會나 職系團體들의 會館의 問題는 工役徒들과 團員들의 執議와 수단에 따라 進行될 것이나, 우리 韓人會의 問題는 어려운 점이 많다. 우리 한인사회가 커짐에 따라서 한인회의 할일이 하루 많아져서, 이제는 一定한 住所와 事務室이 切實히 必要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던바, 永久, 壯嚴한 會館 建設은, 將來를 豫見하여 計劃을 하되, 우선 學面한 通常集會와 幼年集會와 體育가 必要한, 中間建物を 設置함이 適切하다고 意見이 一致되어 간다. 이런것쯤은, 꿈이 아니라, 實現 基盤에 이르렀

VALUABLE COUPON

교정 및 의치전문

라베나 치과

최고의 품질 · 최저의 가격

- 독일 및 미국 치과의사 자격증 소지
- 한국인 부인과 조수가 통역
- 킹카운티에서 두번째로 큰 치과병원

본원에서는 충치제거 최신 약물요법을 사용하여 증세에 따라 마취나 드릴을 하지 않고 오직 환부만 치료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의 치 - 콤포넨트(상하 완전의치 \$548.00)
라베나치과의 모든의치는 직접 제작·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치열교정 - 틀이 일절 (저녁과 토요일도 예약치료 가능)

검사 스케이링 X-레이 플로라이드

ALL AT 1/2 PRICE

DR. I. R. HOLTZ
525 · 6181

916 NE Ravenna Blvd Seattle, WA 98115

VALUABLE COUPON

하나가 됩시다

이신남 <전 한인회 임원>

얼마전 신문을 통해 88년도 신입회장
과 임원진 그리고 이사진들의 출범기사
를 읽었다. 과거 어느때보다도 박진력(?)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말대로 우리 한인들만의 전당
「한인회관」설립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
는 마음 간절하다.

이곳 시애틀에도 날이갈수록 많은 변
화가 속출하고 또 많은 한국인들의 각계
진출도 눈에 보이도록 달라지고 있다. 불
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우리 한국인들의
얼굴보기가 그리 쉬운것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어디를 가나 우리 한국인들의 모
습이 자주 띄는것을 누구나 느낄것이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 한때
였지만 조선소에서 열심히 일하던 우
리 한인들, 또 우체국같은 큰 근무처에
많은 한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정말 이
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눈에 보일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된다.

잠깐동안이지만 한인회라는 곳에 몸담
고 그저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천분지 일
이라도 봉사해보겠다고 분주하게 뛰어다
닌적도 있었기에 우리 한인회관의 필요
성에 더욱 절실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지난 과거 몇년을 뒤돌아본다. 언젠가
는 불과 1년 봉사하는 한인회장직을 불
신임으로 박탈하겠다고 한인회관에 모여
난동(?)을 피운적도 있고, 또 언젠가는
회장직 선거에 불복하여 변호사를 통해
이곳 법원에까지 사건화한적도 있었고
또 얼마전인가는 신입회장을 뽑는 회의
장에 어느교회 단체들에서는 아예 버스
를 가지고 인원을 동원했고 특히 누구누
구는 절대 한인회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공공연한 장소에서까지 발언이 서슴치
않았었고 또 금전세례가 난무해서 예전
에 없는 성황(?)을 이루기도 했었다.

그런가하면 해마다 치뤄지는 「아리랑
의 밤」 행사에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한

명의 교회지도자도 참석을 않는 이번이
일어나기도 했다. (우리가 또 내가 지지
않는 사람이 회장이 됐기 때문인지?), 뭇
가 우리 주변(국내·국제)의 많은 변화에
는 아랑곳없이...

아직 한인회를 중심으로한 우리주위에
는 암울한면이 그대로 남아있어 석연치
않은 느낌을 피할수가 없다. 우리조국 한
국을 잠깐 주시해도 지난 한해 너무나 많
은 변화속에 우리는 번민과 고통까지도
느끼며 간절히 기원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 슬기로운 지혜
아래 한걸음 한걸음 민주화 정착에 가까
게 가는것을 보았을때 무엇보다 다행이
었고 또 흐뭇하기도 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가 되자. 남을 미워
하지 말자. 나 아니면 또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자. 어느누구가
한인회장이 되든 힘껏 신임하고 또 밀어
주자. 천에 하나라도 우리가 원하는 회장
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또 한해가 지나
면 우리가 원하는 새 회장을 뽑을 기회는
항상 있는것이다.

내가 또 우리가 원하는 회장이 아니라
고 외면하고... 또 뒤에서 나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한다면 이많은 교포들의 그나
마 「한인회의 배」는 어디로 가야한단 말

인가?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이념의
차이라고 외면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한
인사회의 지도자는 물론 종교단체의 지
도자도 절대로 될수가 없는것이다.

한인회장은 한국인 이민교민들이면 누
구나 될수가 있는것이다. 종교나 이념을
초월해서 말이다. 또 그나마 민주적인 방
법에 의해 교민들의 손에 의해 선택된 대
표자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
은 교민들의 손에 의해 합법적으로 뽑힌
사람이면 우리는 승복하는 자세도 분명
히 가져야 할것이다. 이제는 다 잊어버리
고 하나가 되자. 크고작은 행사에 모두가
나서서 관여하고 또 참여하여 우리 작은
교민사회의 민주화합의 길에 동참하자.

마지막으로 88년도는 우리조국 한국이
나 우리 교민사회에 하나의 획기적인 변
화도약의 해가 됐으면 한다. 국내적으로
올림픽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기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경제적으로 선진대열
에 진입해야한다. 민주국민의 화합아래
국민의 정치가 수립되어야하는 중대한
기점의 한해이기에 우리 교민들의 마음
은 더욱 무겁고 또 미국이민역사에 한인
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한해가
되어야겠기에 더욱 그러하다.

□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622-2229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426 Yale Ave N
Seattle, WA 98109

비교해보시면 압니다

전국에서 가장싼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대특매



PAYMENT LAYAWAY

(206) 547-3210

GR ENTERPRISES INC.

302 NE 45TH ST. SUITE B SEATTLE, WA 98105

- 결혼보석전문
- 각종세팅 - 개성적인 디자인
- 품질보증서
- GIA 공인감정서

“우리들의 이야기”

데이빗 정

낮설고,
 물설은 이역만리 미국땅에
 이고, 지고 들어와
 손짓, 발짓하며
 밤낮으로 뛰기 그 몇해런가!

말못해 당한 설움,
 알지못해 겪은 눈물,
 얼룩진 사연속에 세월은 흘러...
 이제
 한숨놓고 집에 모여
 오손도손 옛 이야기로
 긴밤을 지새우며,
 “동해물과 백두산이...
 “으악새 슬피우니...”를
 목청껏 부르는 가슴속.

새벽시계 종소리와 함께
 또 하루가 환하게 닥아오면
 군대처럼 바빠뛰는
 화랑의 후예들.

미국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열대어 기르며,
 아들·딸을 대학에 보내는
 우리네의 가슴은
 불처럼 뜨겁다.
 개미처럼 바쁘다.

이제
 우리도
 이땅에 깊이깊이 뿌리 내리고,
 큰 기침하고 살면서
 큰 뿔뿔위에
 태극기 꽂고
 미국속에 한민족을
 드높히 외치며
 굳세게 살아보자!
 힘차게 걸어가자!

KOAM-TV 방송

코엠 케이블 방송 (KOAM-TV):

고국뉴스·지방뉴스·공지사항·연속극
종교방송·가요무대등 다양한 프로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이란? :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선명
한 TV 화면으로 25개 이상의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를 즐기실수 있습니
다.

KOAM TV
방송문의 광고안내
(206) 941-9902

1645 S. 310th Street Federal Way, WA 98003

방송시간표

	CH:29 (VIACOM)	CH:35 (TCI)
타코마지역		
매주화요일	5:30-6:30PM	8:00-9:00PM
매주수요일	5:30-7:00PM	8:00-9:30PM
매주금요일	5:30-7:00PM	8:00-9:30PM
씨애틀지역	CH:14 (GROUP W)	CH:18 (VIACOM)
매주금요일	8:00-9:00PM	
매주토요일	5:30-7:00PM	10:00-12:00AM
매주일요일	5:30-7:00PM	9:00-11:00AM

유언장 작성요령과 유언장의 효력

유언의 필요성

유언이란 말만 들어도 불유쾌한 일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로 자신이 죽고난 다음 유언장이 없는 경우 뒤에 남은 가족들이 겪어야 할 불편을 생각한다면 미리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것도 미국에 사는 생활의 지혜이다.

물론 유언장을 남기지 않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가족이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절차가 마무리지어 실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므로 그사이 유가족들이 경제적 곤란을 당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일단 법원에서 수용한 다음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유산 분배는 법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분배절차를 프로베이트(Probate), 그를 담당하는 법원을 「프로베이트 코트」라고 부른다. 프로베이트 코트에서는 죽은 사람(deceased)의 뜻을 집행하고 고인의 재산을 보호해 준다. 이 프로베이트 코트는 해당 카운티의 수퍼리얼 코트가 되는 것이 상례이다.

법원에서는 유산집행인을 선정하여 유산을 처리하게 되는데 고인이 유언으로 정해 놓은 유산집행인을 「Executor」라고 부른다. 법원이 선정한 유산집행인은 「Administrator」라 한다.

보통 「윌(Will)」로 불리는 유언의 공식법률용어는 Testament다. 유언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고 폐기시키고 전면 재작성할 수도 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는 ① 공식유언(Witnessed Will) ② 친필유언(Holographic Will) ③ 구두유언(Nuncupative Will)의 세가지가 있다.

① 공식유언은 2명의 증인 입회하에 일정한 요식에 따라 유언을 서류로 작성한 다음 본인과 증인 2명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증인은 반드시 유산상속되는 무관한 사람 중에서 선정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변호사 사무실의 리걸세크리터리가 맡는 것이 관례다.

공식유언의 작성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추후 하자가 생겨서 번거롭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좋은데 수수료는 보통 1백50달러에서 3백달러 정도

② 물론 법률이 정한 일정한 양식을 문방구에서 사서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친필유언의 경우 증인이 필요없는데 반드시 본인의 친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일자와 서명이 있어야만 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친필유언의 경우 나중에 위조여부로 믿음이 날 수 있어 공식유언만큼 신뢰도를 갖지 못한다는 것.

③ 구두유언은 그 효력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고인의 임종직전에 1천달러이내의 금품을 특정인에게 남길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그 유언으로 인한 상속 수혜자가 아닌 2명의 증인이 지켜보아야 하며 증인들은 유언자가 사망한지 30일 이내에 유언내용을 적고서 명하여 이를 프로베이트 코트에 접수시켜야 한다.

유언에 관계된 법률용어

유언자는 법률용어로 「Devisor」, 상속인은 「Devisee」라 하며 부동산의 증여는 Devise,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화폐등 동산의 증여는 Bequest 혹은 Legacy라 부른다.

유언으로 남겨진 부동산의 처리는 그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주(State)의 법원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다. 뉴욕주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내에서 사망하면 Domiciliary probate, 타주에서 사망하면 Ancillary probate 케이스가 된다.

유언을 명확하게 남겼을 경우 법원은 Executor가 공정하게 유언을 집행하는지의 여부만 감시할 뿐 별다른 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상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전제산을 법원에 귀속시킨 다음 이를 처분,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해 주기 때문에 최소 1-2년의 시일이 소요된다.

부부중 한쪽이 유언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이 소유했던 재산에 대한 50%의 소유권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개별재산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식이 이를 분배받는데 자녀가 1명뿐일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2분의 1씩 상속받고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3분의1을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2의 유산을 자녀의 숫자대로 균등하게 나누게 된다.

만약 자녀중 사망한 사람이 있고 그 사망한 사람의 자녀(손자·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상속권을 계승받는다. 자식이 없이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가 2분의1, 부모가 2분의1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그외의 경우에는 고인과의 혈연관계(촌수)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쪽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서류상 상속시kin후 각각의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게 된다.

고인이 남긴 부동산은 유언집행과 그 비용부담을 위해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경매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전문감정사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의 90% 이상의 응찰자에게 판매한다.

유언도 남기지 않고 상속자도 전혀 없는 사람의 유산은 주정부가 5년동안 보관한 다음 그때까지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주정부 재산으로 귀속시켜 버린다.

유언에는 재산처리에 관한 것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것도 남길 수 있는데 이를 living Will이라 한다.

미국인을 알려면

당신이 파티에 초대되었다고 하자. 호스트는 오후 7시에 오라고 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신은 몇 시 몇 분 전에 상대의 집에 도착하면 좋을까. 7시 몇 분 전에 도착할 건가, 30분쯤 늦게 도착할 것인가. 미국의 파티에서는 실제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카테일 등을 마시며 얘기를 나눈다. 한동안 그것이 계속된 다음에 자리에 앉게 된다.

7시에 오라고 했다면, 7시부터 카테일이 시작된다는 얘기이므로 7시 전에 가는 일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시간까지 호스트와 호스테스는 준비하느라 바쁘고, 또 준비하는 동안에는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파티가 열리기 직전에 손님을 맞을 옷으로 갈아입는다든지,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파티의 직전에 샤워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시간보다 20분이나 30분 늦게 가는 것도 좋지 않다. 20분이나 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염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속된 시간에서 몇 분 뒤, 혹은 10분쯤 늦게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번에는 자신이 파티를 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초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데, 며칠 전에 알릴 것인가 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lead time이라고 한다. lead time은 일반적으로 1주일이다. 미국의 생활은 주단위이기 때문에 2,3일 전에 스케줄을 세우기란 어렵다.

역으로 2,3주 전에 하게 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며칠 전에 다시 전화를 나누는 상태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누구와 얘기할 때, 미국인들은 똑바로 상대의 눈을 보면서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시선이 변화하지 않는다. 미국인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얘기한다든지 먼 곳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suspicious(의심 많은), 또는 shifty(음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곤 한다.

미국인끼리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말과 말 사이의 silence(침묵)가 아주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대학에서 실시한 간단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이 20분 간 대화를 하는 경우, 단지 10초 정도밖에 silence가 없다고 한다. 동양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조사에서 2분 정도의 silence가 있다고 한다.

말과 관해서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에티켓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미국인은 타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에게도 몸이 닿지 않거나 부딪치는 것은 생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버스나 전철을 탔을 때, 팔이라든지 몸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닿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미국인의 '행동의 기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그 평가는 좋지 않은 것이다.

또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hi'라고 하면서 그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인 것처럼 미소짓는 예가 있다. 그것은 눈이 마주쳤기에 하는 greeting이며,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hi'라고 응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무슨 얘기를 더 하는 것은 더욱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살펴볼 때, 미국인의 행동의 배경에는 미국문화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두세 가지 예를 더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에서는 레스토랑 같은 데 들어갈 때, 남성은 여성으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게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습관을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부터 먼저 들어가는 남성은 예의도 모르는 야만인으로 비친다. 하지만, 뉴욕 등지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새로운 행동패턴이 생겨나고 있다. 곧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장소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괜찮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은 Women's Liberation(여성해방) 등의 움직임에서 나온, 여성도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사람을 부를 때의 경칭에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을 부르는 경우, 여태까지는 Miss와 Mrs가 있어서 그것으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구분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그래서 불평등하다고 해서 여

성에게도 구분없이 부를 수 있는 Ms(미즈)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종차별이나 남녀불평등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지만 한편으로는 건국 이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Equal Chance)를 준다는 미국 태도크라 시도 살아 있다. 능력이 있는 자를 누구나 한 표를 던짐으로써 선출하는 방법을 택한다.

직장의 선택에 관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을 고른다. 대부분의 일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신의 일에 타인이 개입하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매너와 옷차림

서로 모르는 남성이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먼저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악수한다. 이때 한국인들은 곧잘 악수를 하면서 절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악수만으로 족하다. 한국인끼리는 명함을 건네 주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만큼 명함을 주는 일이 습관화되고 있지 않아서 상대가 명함을 주기를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국제거래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은 바로 명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만일 누군가가 중간에서 두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경우라면 소개자가 'This is Mr. Kim from Korea' 등으로 말하면, 소개된 사람은 'How do you do?' 또는 'Nice meeting you' 등으로 인사한다. 이때 상대가 남성인 경우에는 곧장 악수를 하지만, 상대가 여성인 경우에는 그쪽에서 악수를 청해오지 않는 한, 이쪽에서 먼저 악수하지 않는다. 또 여성은 의자에 앉은 채 인사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식사에 초대된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일은 수프나 커피를 마실 때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식사중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경우에는 'Excuse me, I have to do...' 등의 말을 하고서 자리를 뜨도록 한다.

미국에서의 식사란 하나의 사교의 장이 되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곧잘 얘기를 한다. 한국인은 잠자코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으나 되도록이면 얘기에 끼여들도록 해야 한다. 또 식사중이나 혹은 식사 후에 초청해준 사람에게 식사가 맛있었다는 말을 전한다. 또 초대를 받은 다음 날에는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다. 백화점이나 카드 전문점에서 'thank you'라고 적혀 있는 카드를 사와서 요리가 맛있었다든가 무척 즐거

운 한때를 보내었다든가 쓰고 자기 이름을 사인해서 보낸다.

일상의 옷차림으로서, 한국에서는 2, 3일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대개의 사람이 옷을 바꿔 입고 출근한다. 이것은 매일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닳새 동안 다른 옷을 입고서 다음 주에는 먼저 주에 입었던 옷을 또 번갈아 입고서 출근한다는 식이다.

팁(Tp)

미국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일의 한 가지로 팁 제도가 있다. 한국에는 이런 습관이 없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데도 주지 않는다는지 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겪어 오하려 실례가 되는 경우도 있다.

팁에 대한 사고방식의 기본은 '감사'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뢰한 경우나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줘야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다. 미국에서는 이 팁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팁을 주는 예는 그리 흔치 않으며, 레스토랑, 이발소, 미장원 정도이다.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나 웨이터의 경우 팁이 모든 수입이며, 가게 주인으로부터 따로 급료를 받지 않는다.

팁의 액수는 전요금의 10~20%이다. 얼마로 하는가 하는 것은 서비스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한다. 아주 인상이 나쁜 경우에는 팁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서비스가 아주 좋을 때는 30%를 주는 사람도 있다.

요리의 맛이 신통치 않을 때에는 매니저를 불러서 불만을 털어놓을 일이지 웨이트리스에 대한 팁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와인 담당이 있는 경우에는 와인대의 15%를 그 담당에게 팁으로서 직접 건네준다. 또한 테이블까지 안내해 주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팁을 줄 필요가 없지만, 인원 관계로 특별히 테이블을 마련해 준다든지 메뉴에 없는 요리를 특별히 만들어 주도록 해 준 경우에는 2~3달러를 팁으로 준다.

주차장에 담당이 있어서 차를 정면까지 몰고왔을 적에는 25센트를 준다.

바이킹 형식의 스모게스보드레스토랑,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팔고 있는 카페테리아나 드럭스토어 내의 음식 코너, 맥도날드나 쉐라톤프라이드치킨 등의 가게에서는 팁을 줄 필요가 없다.

이발소, 미장원에서는, 흔히 있는 가게, 혹은 다운타운에서 느낌이 괜찮다 싶은 정도의 가게라면, 같은 사람이 컷, 면도, 샴푸 등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10~15%의 팁을 준다. 하지만, 일류호텔 내의 고급 이발소, 미장원에서는 담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헤어컷, 면도, 샴푸, 구두닦이, 매니큐어 등 담당에게 각각 10~15%를 건네준다.

택시에서의 팁의 기준은 10~15%, 요금 이 2~3달러 정도라면 25~50센트. 비행장에 가고 오면서 큰 짐을 트렁크에 넣어 주도록 부탁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해서 주도록 한다. 거스름을 그대로 팁으로 하는 경우에는 'Keep change'라고 말한다. 비행장이나 역에서 포터에게 짐을 날라 주도록 부탁하는 경우, 짐 6개에 대해 50센트.

호텔, 모텔에서 입구에 서 있는 도어맨에게는 짐이 있든 없든 50센트는 주어야 한다. 이 도어맨에게 팁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그 뒤의 서비스에 영향이 있다고 말해진다.

다음에 짐을 나르는 벨보이(또는 포터)에게 짐 하나에 대해 보통 호텔이면 25센트, 고급호텔이면 50센트 이상. 팁을 이틀 도어맨, 프론트, 포터에게 미리 줘놓으면 나중에 극장, 레스토랑, 관광버스의 예약이나 우편물의 발송, 택시의 수배 등에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보아준다.

베드나 실내청소를 하는 룸메이드에게는 1박에 대해 50센트 정도를 매일 아침, 베개 아래나 나이트레프 아래에 넣어두도록 한다.

식사를 자기 방에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날라다 주는데, 그때 웨이터에게 주는 룸서비스를 위한 팁은 10~15%.

일류호텔의 경우, 각자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고 있으므로 너무 작은 액수의 팁을 주면 화를 내며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번 그들을 화나게 하면 서로 서먹서먹한 기분으로 지내지 않을 수 없다.

클로크의 경우에는 미술관, 영화관, 극장,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의 클로크 담당에게 코트 1벌에 1달러. 세면 담당이 있는 화장실에서는 타월 1장에 대해 25센트.

